

# INVITATION TO THE ART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9  
vol.309



표지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세릴리아의 이발사 II

세계의 공연장  
루체른 페스티벌과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세계의 평화를 향한 청소년들의 어울림길

## 엔젤피스 예술단은

국제로타리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예술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육성 배양하고 세계 200여개 로타리 회원 국가와 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제 이해와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며 문화도시 부산의 홍보사절단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부산국제합창제 개막 축하공연**

2017. 9. 6(수) 오후 8:00 소향아트홀



**엔젤피스 예술단**  
Angel Peace Art Group

본 사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09 (불이빌딩6층)  
☎ 051-557-1088 팩스 051-557-2253

예술회관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3-13 YMCA B/D 10층 엔젤피스 예술회관  
☎ 051-638-3661~2 팩스 051-638-3663

The 62nd Eulsukdo International Music Concert

Dream of Renaissance  
르네상스를 꿈꾸다

문화융성  
2017 문화융성  
문화융성



제6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김원영



지 휘  
초세이 고마프



비율라  
다니엘 말미지오



바이올린  
마르타 코발치크

### 프로그램

- 베 토 벤 '에그먼트' 서곡
-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 나장조
- 현델스존 교향곡 제3번 '스코트랜드' 가단조

V. Kwon

주최기관  
문화융성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051) 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무대감독 | 이순재 조영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3회 유초등부

신영음악콩쿨

피아노/성악/관현악

2017.9.9(토)

접 수 콘테스트 <http://contest.co.kr>

장 소 글로벌아트홀(051-505-5995)

# 제24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대 회 일 2017.9.30(토) 성악,중창  
2017.10.7(토) 피아노,작곡,국악  
2017.10.9(월) 현악,관악,실내악  
접 수 7.17~9.26(화)  
<http://contest.co.kr> 콘테스트  
대 상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장 소 글로벌아트홀

[glovil@hanmail.net](mailto:glovil@hanmail.net) / <http://www.glovil.org>

051-505-5995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지휘 윤승업 사회 정희정 소프라노 김순영 바리톤 박정민 연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불후의 명곡> 우승자 남성 듀오 올므

2017. 9. 19(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한국전력공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신청 | 프라임필 사무국 031-392-6422

인터넷신청 | 프라임필 홈페이지 [www.primephil.net](http://www.primephil.net)

공연문의 | 한국전력 부산 울산지역본부 051-801-2322

한국전력 홍보실 061-345-3116

**전석초대**

※이 연주회는 초대권소지, 전화·인터넷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신청마감 : 9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부산문화재단

부산기금  
문화나눔  
www.bsc.or.kr



# DAVID FRAY

다비드 프레이 & 세종솔로이스츠  
BACH AND BEYOND

# SEJONG SOLOISTS



2017. 9. 16<sup>SAT</sup> 5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및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 www.ticketpark.com 1544-1555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솔로이스츠 후원 | 지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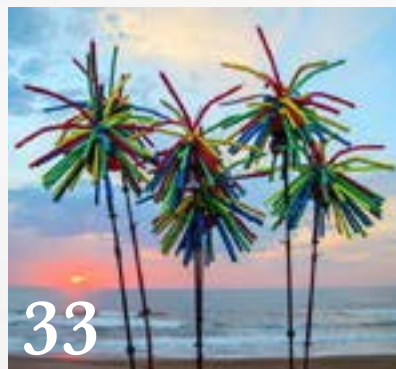
☎ 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고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공연 1시간전 / 30분전(2회 운영)



**SPECIAL +**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 '세가지 안전약속'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루체른 페스티벌과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VIEW +**  
문화가 화제  
제13회 부산국제합창제  
2017 바다미술제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

# contents

---

## SPECIAL +

- 10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 - 세가지 안전약속'

---

## CULTURE +

- 12 **9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탈리아 극장에서 생긴 일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II'
- 16 **세계의 공연장**  
루체른 페스티벌과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 20 **축제 속으로**  
201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22 **테마가 있는 여행**  
'바람의 고장' 영덕에서 만나는 신재생에너지

---

## VIEW +

- 29 **프리뷰**
- 33 **문화가 화제**  
제13회 부산국제합창제 / 2017 바다미술제
- 35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

## NEWS +

- 50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 55 **SNS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

2017년 9월호 통권 30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지난 1991년 건립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이 오는 9월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9월 13일 문을 여는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전용극장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어린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객석 수 212석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지난 2009년 음향설비 교체와 더불어 관객 눈높이에 맞게 무대높이를 조정하기도 했던 소극장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을 앞두고 두 달간의 공사를 통해 출입구, 무대, 로비 등 낡은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 관람층인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화장실을 설치했다. 특히 활용도가 낮았던 소극장 로비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공연뿐 아니라 전시체험도 가능케 하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을 기념해 9월 13일부터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을 무대에 올린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년버벌 퍼포먼스극인 '난타'를 제작한 PMC퍼러덕션의 믿고 보는 명품 어린이공연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경찰차 폴리과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



9월 13일(수)~12월 31일(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주말 오후 2:00(월요일 휴관)

전석 2만원(4인 가족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및 태그 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0% 할인)  
※ 당일 현장에서 증빙서류 미지참 시 차액 지불, SNS 할인 시 현장에서 모바일 확인 후 입장 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 MY FIRST TRIP INTO ART : TRUNK PROJECT



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보카 폴리'는 단순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로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우정과 협동심, 이타심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부모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용 뮤지컬로, '뒤뚱뚱 색깔약속', '땅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병균아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진 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유발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인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공연으로, 화려한 무대효과와 쇼 중심의 공연에 지친 어린이 및 가족 관객들에게 믿고 볼 수 있는 명품 어린이극을 선사한다.

공연은 9월 13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지역 어린이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월요일을 제외한 주말까지 열린다. 또, 처음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공연장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할인을 또한 대폭 제공한다. 4인가족 이상,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및 태그 시에는 입장료 6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기념전

## 생애 첫 문화나들이 : 이정윤의 트렁크 프로젝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을 기념해 특별한 개관 기념전도 마련한다. 개관일인 9월 13일부터 열리는 개관기념전 '생애 첫 문화나들이 : 이정윤의 트렁크 프로젝트'는 어린이 전용극장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격인 전시로, '하이힐 신은 꼬끼리'의 작가 이정윤의 색다른 설치 작품들이 기존 극장이라는 공간의 틀에서 벗어나 전시되면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산 출신의 이정윤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와 부산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임신 중 동화책에서 만난 꼬끼리를 통해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 투영해보고, 하늘을 나는 꼬끼리와 같이 상상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매료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에 다수 참여했다.

어린이 전용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극장 곳곳에서 이정윤 작가의 작품과 마주치게 된다. '덩치 큰 꼬끼리와 실내에서 마주치는 것도 놀라운데, 어래 꼬끼리가 하이힐을 신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어린이들이 꼬끼리의 의인화된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순간, 꼬끼리는 더 이상 거대한 몸집의 동물이 아닌 토닥토닥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변한다. 전시는 극장 입구를 지나 복도 옆 통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특히 이정윤 작가가 부산문화회관을 배경으로, 드로잉으로 꾸민 'Activity room'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이 색칠놀이를 하듯 벽에 그림을 그리며 저마다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 09

2017 SE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대** 대극장    **중** 중극장
-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 어** 어린이 전용극장

SUN	MON	TUE
<p><b>전시실</b></p> <p>부산국제사진제 'Where am I' - 대전시실 9월 2일(토)~9월 17일(일) *2일 오후 2:00 전시 오픈 문의 : 총무 정계영(010-8525-9554)</p> <p>한국서예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서예대전' - 대전시실 9월 22일(금)~9월 27일(수) *27일 오후 4:00 전시마감 문의 : 장전선(010-9631-4130)</p>	<p>부산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전시회 - 대전시실 9월 30일(토)~10월 2일(월) 문의 : 부산대학교 디자인과(510-1736)</p>	
<p><b>3</b></p> <p><b>대</b>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4:00, 17:00 초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p><b>4</b></p>	<p><b>5</b></p> <p><b>캠</b> 길명훈 플루트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 길명훈(010-9250-3348)</p>
<p><b>10</b></p> <p><b>대</b>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3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떼루 떼루아 떼루아' 18:00 3만원·1만원 부산가야금연주단(010-8545-4816)</p> <p><b>캠</b> 박승훈&amp;서영교 듀오 리사이틀 15:30 전석 1만원 서영교(010-6886-5896)</p>	<p><b>11</b></p> <p><b>캠</b>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 최낙주(010-4536-2351)</p>	<p><b>12</b></p> <p><b>대</b>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KNN(850-9568)</p> <p><b>캠</b> 양은정 귀곡 바이올린 독주회 19:30 무료 양은정(010-5318-0296)</p>
<p><b>17</b></p> <p><b>캠</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리스트 첼로양상블 경상 창단연주회'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플라-세가지 안전약속'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18</b></p>	<p><b>19</b></p> <p><b>대</b>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 산책순 입장) 프라임필 사무국(031-392-6419)</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플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4</b></p>	<p><b>25</b></p> <p><b>대</b> 유엔젤 보이스 19:30 3만원·2만원·1만원 한가지꿈 음악연구소(703-4106, 4108)</p> <p><b>캠</b>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Emotion'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플라-세가지 안전약속'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6</b></p> <p><b>대</b>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립극관현악단 제43회 청소년 협연의 밤 19:30 전석 2천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부산시립극관현악단(607-3124)</p> <p><b>캠</b> 권경미 귀곡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권경미(010-6575-5837)</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플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WED	THU	FRI	SAT
		1	2
		<p><b>대</b> 아세안문화원 부산 개원 기념공연 -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19:30 무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775-2033)</p>	<p><b>대</b>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1 '개막콘서트_만프레드' 17:0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6	7	8	9
<p><b>대</b>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춘몽(春夢)' 19:30 전석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p><b>캠</b> 이로 란탈라&amp;올프 바케니우스 in Busan 20:00 전석 5만원 플러스히체(02-941-1150)</p>	<p><b>대</b>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 16:00, 메인콘서트 V '여정(Journey)' 19:30 초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p><b>캠</b> 소프라노 박성의 귀국 독창회 '어제를 노래하다' 19:30 무료 박성의(010-7913-5955)</p>	<p><b>캠</b>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Cello, All my Life' 19:3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대</b>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I '폐막콘서트_약속(Promise)' 17:0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13	14	15	16
<p><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캠</b> 4사 4색 음악회 19:30 전석 1만원 우리아트(920-9545)</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b>◆</b>2017 Theatre 이문세 20:00 14만3천원·13만2천원·11만원· 9만9천원·8만8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캠</b>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b>◆</b>2017 Theatre 이문세 18:00 14만3천원·13만2천원·11만원·9만9천원· 8만8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캠</b> <b>◆</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다비드 프레이와 세종솔리스트' 17:00 5만원·3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0	21	22	23
<p><b>대</b> <b>◆</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11:0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유나이티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동방의 등불'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재)유나이티드 문화재단(02-553-0377)</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캠</b> 강성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 강성은(010-5066-2718)</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캠</b> 소프라노 김시하 독창회 19:30 전석 1만원 우리아트(920-9545)</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사)기획의학속 자선음악회 20주년, (사)한국콜핑협회 창립 30주년 자선음악회 18:00 전석 1만원/(사)한국콜핑협회(010-9984-7169)</p> <p><b>캠</b>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15:00 전석 1만원 the Yoon(010-9025-2012)</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7	28	29	30
<p><b>대</b>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심포니 No. 5-II'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b>◆</b>부산시립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가을, 숲, 그리움' 19:30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b>캠</b> 피아니스트 홍지혜 반주 리사이틀 '프란츠 슈베르트' 19:30 5만원·1만원/우리아트(920-9545)</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b>◆</b>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대</b> <b>◆</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노자와 베르벤 III '희로애락(喜怒哀樂)-애(哀)' 17:0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어</b>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라-세가지 안전약속'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탈리아 극장에서 생긴 일

##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Barbiere di Siviglia* II



14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을 연출하게 된 나로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지난달 원고에 쓴 바와 같이) 스승과의 '계약된 만남'을 뒤로 한 채 베르첼리에서 밀라노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나폴리 공항에 도착해 다시 기차를 타고 살레르노까지 거의 1,000킬로의 여정을 거쳐 극장에 도착했다. 살레르노 테아트로는 1872년에 건립해 베르디에게 헌정되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지휘자 다니엘 오렌이 극장장으로 있는, 그야말로 전통과 깊은 내공을 지닌 극장이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극장 스태프들의 텃세는 상당히 강하기에 그곳에 가기 전부터 이탈리아, 한국측 관계자 모두 동양인 연출가가 그곳에서 잘 융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내가 오기 전 그들은 당연히 머리 희끗희끗한 60세 이상의 연출가가 오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사람-우리가 서양인들의 연령을 파악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다-이 여기 저기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에 어리둥절해 했다. 의아해 하며 "재는 누구지?" 하는 그들에게 나는 제일 먼저 극장 스태프들의 이름을 일일이 묻고 '마르코', '실비오', '프랑코', '마리오', '프란체스코' 등 한 명씩 얼굴을 떠올리며 외우기 시작했다. 유학시절 나의 이탈리아 이름은 '루이지(Luigi)'였는데 이는 내 이름 '이의주'의

발음과 비슷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이렇게 통성명을 하기 시작한 지 2시간여, 이탈리아들은 '마에스트로 루이지!' 하며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 기억력이 좋았던 나는 친절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연출자로서의 권위와 위엄보다는 스승의 가르침처럼 같은 동료로서 즐겁게 작업해 나가기 시작했다.

만나질쯤 지났을까? 이 극장의 실질적인 캡틴인 예술감독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이 공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날 고깝게 여기며 내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연에 대한 제안이 오가던 중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공연 연출을 맡은 한국인 연출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그가 프로젝션을 통해 나에게 프로필을 보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자세가 동양인 연출자를 무시하고 놀려 버리려는 이탈리아들 특유의 행동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 국립 오페라단 상임연출 출신인 내가 왜 개인적으로 프로필을 제출하면서까지 마치 나를 써 주세요...하듯 해야 하지? 난 그렇게 절대 못해! 우리가 왜 급신거리는 듯한 제스처를 해야 합니까?'라고 담당자에게 내 뜻을 전하며 '저기 극장장 다니엘 오렌의 프로필을 나한테 직접 보내면 내 것도 보내 주겠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건방진 자세로 응대했다. 다니엘 오렌의 프로필을 보내라니? 내가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난 결국 그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냥 내 프로필을 보내고 기다리라며 나의 행동을 만류했지만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예술감독인 안토니오 마르출로는 '도대체 저 놈의 자식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야? 여기 불러들여봐!' 하면서 나의 작품을 이탈리아로 오게 한 것이다. 이러니 안토니오가 나를 처음 볼 때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했다. '부온 조르노(Buon Giorno)'도 아니고 '살베(Salve)'라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며 자신의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를 보는 눈빛이 '너 얼마나 잘 하나 보자!'였었다. 이것은 나중에 안토니오가 나에게 웃으며 한 말이었다. 그렇게 담담한 첫 대면을 마치며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 셋업이 완성되고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연습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역동적이고 개똥있는 설명을 하면서 연출 동선을 만들어 갔다. 방방 뛰며 노래하는 연출가가 신기했던지 그들도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가 지나갈 때 '장군님'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마에스트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다.(이런 인사를 받는 나는 기



분이 참 좋았다. 인정받는 것만큼 나를 자극하는 청량제는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객석에 앉아서 보던 안토니오는 나를 무시하고 곶탕 먹일 건수를 드디어 찾아냈는지 손짓으로 나를 오라고 했다. 내가 못 본 척하니 결국 비서를 시켜 나에게 직접 와달라고 부탁했다. 다가가자 “루이지! 당신, 이 작품의 작곡가 롯시니의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라며 꼬투리를 잡듯 의기양양해 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미소지었다. ‘너 드디어 나한테 걸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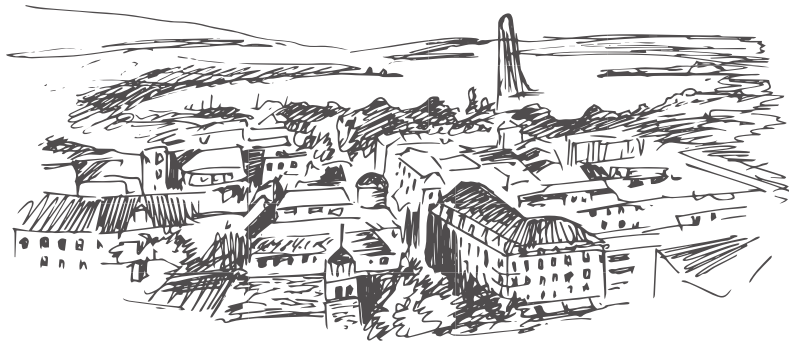
벨칸토 시대의 작곡가 롯시니(1792-1868), 도니젯티(1797-1848), 벨리니(1801-1835) 중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가장 만형인 롯시니의 작품이다. 이 세 작곡가로 인해 이탈리아는 확실한 오페라 종주국이 되었고 이어 베르디와 푸치니에 이르러 금자탑을 쌓게 된다. 특히 이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그 작품성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 수준의 작품이다. 공연 도입부 서곡 연주 시 무대막 영상에 이탈리아어로 작품에 대한 연출가의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내가 작곡가 이름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G. Rossini(Gioacchino Rossini)

가 아닌 G. A. Rossini로 표기한 것이다. 안토니오 예술감독은 내게 “저 A가 뭐냐고? 정확하게 표기했어야지, 연출가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라며 나를 무시하듯 의기양양하게 따졌고, 나는 곧바로 ‘쇼야끼노 안토니오 롯시니, 1792년 출생 1868년 별세, 게다가 당신과 같은 이름 안토니오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가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폰으로 검색해봐”라고 지시했고 이어 비서가 이내 내가 맞다고 알려주자 국립음악원 교수로서 이 사실을 몰랐던 그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곧 나에게 ‘마에스트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리허설 중 바쁘신데 이 일로 불려서 미안합니다’라고 90도로 인사하는 게 아닌가? 힘겨루기 하듯 긴장감 넘친 리허설을 마치고, 아주 늦은 저녁 호텔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는데 뚝으로 전화가 왔다. 안토니오였다. 그는 내게 공연 무대연습과 관련해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짧은 일정 동안 하루 연습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 너무 아까웠던 나는 조명과 테크니컬 리허설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공연 전날은 으레 쉬는 날임에도 무대 리허설을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했고, 그는 흔쾌히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비롯한 모든 공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나의 지시에 따라주었고 덕분에 공연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빌리아의 이발사’인 주인공 ‘피가로’는 마음의 해결사이다. 살레르노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해결사는 ‘음악’과 ‘소통’이었다. 국적은 달라도 음악과 드라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깐깐한 오페라 종주국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였기 때문이다. 어느새 2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과 그리운 얼굴들이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이번 달 나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이탈리아에 가는데 안토니오와 만나 극장 앞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라도 한 잔 하려 한다. 그 추억의 극장으로 달려가 봐야겠다.







## SWITZERLAND



루체른 페스티벌과

##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16

7, 8월 유럽의 여름은 휴가 시즌임과 동시에 축제 시즌이기도 하다. 특히 클래식 음악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6월 말부터 시작하는 베로나 오페라 축제(Arena di Verona)를 시작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취리히 오페라 페스티벌(Zurich opera Festival)이 개최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런던 로열 앨버트홀(Royal Albert hall)에서 BBC 프롬스가 시작하는가 하면, 하반기에는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Verbier Festival)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Bayreuth Festival)이 열린다. 잘츠부르크, 브레겐츠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 Festival)과 브레겐츠 오페라 축제(Begenz Festival)가 개최되면서 이 즈음 시작한 축제는 대개 8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한편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페스티벌은 인스부르크 고음악 축제(Innsbruck Alter Music Festival)와 루체른 페스티벌(Lucerne Festival)이 있는데, 루체른 페스티벌과 축제가 열리는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Kultur und Kongresszentrum Luzern)를 이번호에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휴가가 끝나는 9월이 되면 대부분은 축제도 화려하게 막을 내리고, 이제 제각기 활동하는 연주단체는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 새로 시작되는 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하지만 루체른 페스티벌은 9월 초까지 이어진다. 간혹 루체른 페스티벌의 공연 중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이 그러하다. 통상 잘츠부르크의 후반부 또는 폐막연주를 끝내고 루체른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9월 초 공연을 한다.

- 1 스위스 루체른
- 2 바그너 박물관(Wagner Museum)
- 3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루체른 페스티벌 *Lucerne Festival*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에르네스트 아세르메와 같은 지휘자는 오래전부터 루체른을 음악축제를 개최할 만한 최적의 도시로 손꼽았었다. 그러던 중 1930년대에 들어 나치의 집권은 음악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유대계 음악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들이 활동하기에 제약이 많아진다. 마침 이 즈음, 루체른 근교 트립센(Tribschen)에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생전에 거주하던 저택이 있었는데, 1932년 루체른 시가 이 집을 사들여 바그너 박물관(Wagner Museum)으로 개관했고 1938년 토스카니니가 바그너 저택에서 갈라콘서트를 연 것이 루체른 페스티벌의 전신이었다.

첫번째 갈라 콘서트의 성공은 미국으로 생중계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고 이에 힘입은 토스카니니는 루체른 쿤스트하우스(Kunsthau Luzern)로 장소를 옮겨 재공연했다. 바로 루체른 국제음악축제(IMF: Internationale Musikfestwochen Luzern)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943년에는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스위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Schweizerische Festspielorchester)가 창단되었고, 루체른 국제음악축제의 개막 공연을 연주했다. 1950년대부터는 루체른 국제음악축제에 빈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과 같은 해외의 유명 연주단체가 참여해 스위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축제를 이끌었다. 지금과 같은 축제의 모양새가 구비된 셈이다. 하지만 1992년, 50여 년간 루체른 국제음악축제를 이끌어온 스위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해산되고 축제가 힘이 빠질 무렵, 루체른 국제음악축제 60주년을 맞이한 1998년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새로운 공연장, 루체른 문화센터가 개관하게 된다. 다시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건 2003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모아서 만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 Lucerne Festival Orchestra)가 그 해 여름 페스티벌 개막 공연에 구스타프 말리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하면서이다. 이후부터 아바도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리 교향곡 연주는 세계 음악팬들에게 큰 선물과 함께 하나의 기다림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말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은 연주하지 못한채 2014년 아바도가 타계하면서 루체른 페스티벌은 그 중심을 잃는 듯 보였다.

2015년 젊은 지휘자 안드리스 넬손스가 잠시 지휘봉을 잡았으며, 2016년 리카르도 샤이가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루체른 페스티벌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샤이가 선택한 개막곡은 바로 말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 포스트 아바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루체른 페스티벌의 역사를 잠시 언급해보았는데, 재미있는 건 바그너하우스가 그 시작이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토스카니니와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리고 지금의 리카르도 샤이까지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들이 이 축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스위스는 독일과 이탈리아, 두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필자가 루체른 페스티벌에 처음 참석했던 것도 어느덧 7년이 흘렀다. 201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폐막 연주를 보고 스위스 루체른으로 넘어와 만났던 것이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역시 최고의 연주는 전임 음악감독 클라우디오 아바도와의 조우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2013년까지 매년 아바도가 지휘하는 개막 연주에 맞추어 참석했지만, 결국 끝내 전세계 음악팬들이 기다렸던 말리의 '천인교향곡'은 만날 수 없었다. 이후 넬손스를 거쳐 작년 리카르도 샤이가 개막식 지휘봉을 잡으면서 말리의 '천인교향곡'을 연주했다. 잠시 주춤하던 루체른 페스티벌은 이제 새 음악감독 리카르도 샤이에 의해서 다시 새 역사를 써 나가게 될 것이다.

###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Kultur und Kongresszentrum Luzern*

피어발트슈테터(Vierwaldstatter) 호수의 북쪽, 루체른 중앙역 옆에 위치한 KKL 부지는 1934년부터 루체른의 각종 페스티벌이 열렸던 아트 앤 컨벤션 센터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1980년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한 재단이 생기고, 1989년 실시된 공모전에서 건축가 장 누벨이 당선되었다. 그는 최근 개관한 필하모니아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물 위에 뜬 대형 선박이 연



4



5

- 4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전경
- 5 콘서트홀 내 파이프로르간
- 6 콘서트홀 천장의 반사판
- 7 콘서트홀 객석



상되며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Reina Sofia Museum) 신관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장기인 캔틸레버를 적용, 극도로 날카로운 날처럼 정방형의 한면이 100m 가까이 되는 지붕은 마치 루체른 호수의 수평선의 연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 보면 바닥층의 파테어는 입구에서 한 층 내려가야 하며 그 위로 4층의 테라스를 가진 긴 직사각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천장과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백색의 음향 흡음판이 메우고 있는데 각각의 패널이 움직이면서 잔향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공연 이후 그 사이로 붉은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 때문에 백색의 흡음판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천장에는 긴 공연장 평면을 보완하기 위해 리플렉션, 즉 반사판이 달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합창석으로 알고 있는 포디엄석이 무대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격정책과 달리 두 번째 카테고리 등급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층고가 높은 탓에 기존의 오케스트라 전용홀과 달리 난반사가 단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객석수 1,840석의 KKL 콘서트홀은 근래에 지어진 콘서트홀 중 가장 음향적으로 뛰어난 연주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은 메인 성격이 8~9월 개최되는 루체른 여름 페스티벌(Lucerne Festival im Sommer)과 3월의 루체른 부활절 페스티벌(Lucerne Festival zu Ostern), 그리고 11월의 루체른 피아노 페스티벌(Lucerne Festival am Piano)로 구성되는데, KKL 콘서트홀 성격상 교향곡 연주와 독주회로 구성된다. 특히 3월 루체른 부활절 페스티벌은 교향악단의 연주로만 구성되면서 이 기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들이 이 곳을 찾는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라 다른 시즌 루체른에 방문한다면 만날 수 없다. 오로지 축제가 열리는 3월과 8월, 9월에만 존재하며, 가끔 투어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오로지 KKL에서만 만날 수 있다.





# 2017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축제인간 말뚝이의 소원* *Wish of Homo-festivus*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는 매년, 전 세계 탈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들이 전승되어 온 지역으로, 이런 안동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운영해오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탈'은 각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로 각 국가의 종교, 삶, 놀이, 예술 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런 탈춤을 통해 서로의 신명을 느끼며 문화적 교류를 꾀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첫 번째 축제가 열렸던 1997년 그해 문화체육부로부터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1999년 문화관광부 6대 집중육성 축제, 2008년~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2011년~2014년 문화관광부 선정 명예 대표축제, 2015년~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01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열흘간 '축제인간 말뚝이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안동시내와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안동 전역에서 펼쳐진다. 큰 눈과 귀로 사람들의 소원을 보고 듣는 말뚝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탈춤 캐릭터로, 말뚝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축제를 통해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비롯해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가산오광대 등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없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개 탈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안동을 처음 찾는 볼리비아를 비롯해 라트비아, 대만,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터키, 베트남,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14개 단체 해외 공연단이 축제에 참가, 저마다 특색있는 자국의 고유한 탈춤 무대를 선보인다.

9월 29일(금)~10월 8일(일) 안동탈춤공원 외 안동시 일원  
안동축제관광재단 054-841-6397~8, www.maskdance.com

또한 거리에서는 안동 시민을 비롯해 안동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탈놀이 대동난장이 펼쳐진다. 축제기간 하회마을 부용대에서는 하회마을 양반들의 고유한 민속놀이인 선유출몰놀이를, 성황당에서는 하회별신굿을 하기에 앞서 하회마을의 동신을 모시는 강신마당을 만날 수 있다. 한국-터키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축제 기간 중 '터키의 날'을 개최,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진행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축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콘텐츠 확보 및 공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버스킹을 공모하는 등 보다 많은 젊은 층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탈놀이단은 올해도 말뚝이 캐릭터를 기본으로 한 재미있고 역동적인 춤과 동작으로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축제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통시장에서의 축제는 국내외 공연단이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마임, 전통보부상행렬 등을 통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전통시장까지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기간 열흘 중 8일이 추석 연휴로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9월 22일까지 공연 입장권을 예매하면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입한 예매권은 현장 매표소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한 뒤 입장할 수 있다.





부산녹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 바람의 고장, 영덕에서 만나는 신재생에너지



1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8월과 9월에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로 진행된다.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에코투어'는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총 11차례 진행되면서 참가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덕어촌민속전시관

부산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부경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산·학·관·민·연의 컨소시엄을 구성,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설립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그동안 부산지역의 환경여건 조사·연구,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정책연구, 사전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외에도 환경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오랜만의 비 소식과 함께 무더위가 한풀 꺾인 지난 8월 11일, 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2017 에코여행'의 첫 방문지는 바람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교육장으로 유명한 경북 영덕. 흐린 날씨에도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에 회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하다.

장장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 선생의 탄생지이자 조선시대 전통가옥들로 고색창연한 과시전통마을. 영양 남씨의 집성촌으로, 영양 남씨 과시파종택(경북민속자료 제75호) 등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고가 30여 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사대부들의 주택양식과 문화를 짐작해볼 수 있다. 원래는 마을 북



- |          |               |
|----------|---------------|
| 1 영덕풍력단지 | 2 괴시전통마을      |
| 3 목은기념관  | 4 해맞이공원 창포말등대 |

쪽에 호지(濠池)라는 저수지가 있어 호지촌이라 불리었으나, 문장(文章)으로 원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귀국한 목은 선생이 자신이 태어난 호지촌이 중국의 문장가인 구양현의 고향인 괴시마을과 비슷하다 하여 '괴시'로 이름 고쳤다 전해진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모여앉은 회원들은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인다. 잠시 빗줄기가 잠잠해지는 틈을 타 마을 뒤 산어귀에 자리한 목은기념관까지 모두 둘러보고 회원들은 다음 일정지인 차유어촌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선정된 차유어촌마을은 가장 맛있는 영덕 대게가 잡히는 영덕대게 원조마을로, 매년 대게철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진짜 영덕대게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원래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맨손고기잡기'나 '투명카누타기'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내리던 비와 높은 파도로 취소되던

서 아쉬움을 남겼다.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식당에서 신선한 회가 푸짐한 회덮밥으로 아쉬움을 달랜 회원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영덕신재생에너지관이 자리하고 있는 영덕풍력단지로 향했다.

24기의 거대한 풍차돌이(풍력발전기)가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연간 96,68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민간 풍력발전단지로, 이 발전 용량으로 한 해 영덕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인근 해맞이공원과 더불어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 곳에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해맞이 캠핑장, 항공기전시장, 야외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바람정원, 하늘정원, 바람개비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어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 태양열,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하는 현장 교육장으로, 지난 2009년 9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연간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원리와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영상과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많다. 회원들은 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미래 대체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영덕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삼사해상공원으로 가기 앞서 회원들은 전국 제일





5



- 5 해맞이공원  
6,7 신재생에너지전시관  
8 영덕어촌민속전시관

8

의 청정해역과 울창한 해송림으로 둘러싸인 해맞이공원에 잠시 들렀다. 대게 집게발로 감싸져 있는 창포말등대가 우선 시선을 사로잡는 해맞이공원은 지난 1997년 2월,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되어 방치되던 창포리 동해안 일대를 4년간 재정비해 수려한 해안절경과 무인등대를 활용한 인공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한여름을 무색케 하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회원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강구항 남쪽,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삼사해상공원은 주위의 경치가 아름다워 일 년 내내 관광객들이 붐비는 영덕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29t의 경북대종과 20t 규모의 천하제일 화문석, 9m 높이의 인공폭포와 기동분수, 그리고 방갈로와 식당, 매점 등이 들어서 있어 가족휴양지로도 인기가 많으며, 매년 새해에는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삼사해상공원에 자리한 영덕어촌민

속전시관은 영덕의 다양한 문화와 놀이, 어촌의 생활, 전통어선의 제작과정, 바다 속 해저지형, 그리고 영덕을 상징하는 대게의 성장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어 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고유 전통민속과 문화를 배워볼 수 있다.

영덕어촌민속전시관 탐방을 마지막으로 영덕에서의 여행일정을 모두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짧은 일정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영덕 여행은 친환경 생태여행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의(義)와 예(禮)의 고장 의성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 일정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의성 도착, 천년고찰 고운사 탐방
- 12:00 한국애플리드로 이동, 중식,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체험
- 14:00 조문국박물관 탐방
- 15:30 산운생태공원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10.13일

신라의 최치원이 승려 여지, 여사대사 등과 함께 가운루·우화루를 세우고 이를 기념하여 최치원의 호로 이름 지은 천년고찰 '고운사(孤雲寺)'와 의성의 사라진 왕국 조문국 유적을 전시한 조문국 박물관을 둘러보고 의성의 명물 사과로 만든 사과 와인 만들기를 체험해본다.

## 09 월 테마여행 당첨자

### ● 신규 회원

김나라(금정구 오륜대로)	오현주(수영구 광안해변로)
김순덕(기장읍 차성로)	이경숙(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도수현(남구 분포로)	정꽃님(북구 화명신도시로)
박도연(동래구 시실로)	정미은(남구 분포로)
배재해(수영구 광안해변로)	황정규(사하구 제석로)

### ● 기존 회원

김길자(남구 우암로)	배용귀(남구 석포로)
김철호(수영구 과정로)	오일석(북구 화명신도시로)
김혜진(남구 황령대로)	전정희(남구 천제등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정신자(남구 분포로)
배태원(수영구 남천서로)	주덕(금정구 금단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영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부산시립교향악단

##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017. 9. 13(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PROGRAM

슈포어	클라리넷 협주곡 제4번 中 제1악장
세주르네	마림바 협주곡 中 제2악장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中 제3악장
엘가	첼로 협주곡 中 제4악장
코렐	마림바 협주곡 제1번 中 제3악장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中 제1악장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中 제3악장
리스트	죽음의 무도



지휘 | 김봉미



플루트 | 변봉현

마림바 | 박찬식

바이올린 | 박찬미

첼로 | 성아란

마림바 | 박지은

플루트 | 김경희

바이올린 | 신효은

피아노 | 김주현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균일 2,000원(자유석)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 / 30분전(2회 운행)



# 가을, 쇼, 그리움...

부산시립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지휘 전 진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피아노 이승운



피아노 이경미

특별출연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문)

2017. 9. 28(목) 7:30 오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

예매 |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5(정기회원)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 View Plus

## INVITATION TO THE ARTS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지휘자 오충근



플루트 최나경



바이올린 김봄소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비엔(BN)그룹이 매년 가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가 올해도 9월 1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는 비엔(BN) 그룹이 지난 2008년 기업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지역 예술계와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행사로, 매년 가을 부산을 대표하는 간판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는 1회 때부터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품격있는 무대를 선사해왔으며, 그동안 기업사랑 음악회를 통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데이비드 김, 신지아, 피아니스트 김다솔, 플루티스트 최나경, 소프라노 박은주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이 부산시민과 만나왔다. 특히 지난해 제9회 음악회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사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기업사랑 음악회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올해 음악회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과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루이 블라스' 서곡 작품 95를 시작으로 플루트 협연으로 들려주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26',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작품 64'를 들려준다.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 하모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클래식의 메카인 베를린필하모니홀,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동경 예술극장,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 서면서 한국 지휘자를 각인시킨 부산 출신의 지휘자로, 지난 2006년 제9회 KNN 문화대상, 2016년 제48대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해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된 방송교향악단으로, 탁월한 실력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독자적인 색채로 소통하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은 지난 2007년 187: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에 입단하면서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첫 한국인 관악 주자라는 명성을 얻은 데 이어 2012년에는 112년 전통의 비엔나 심포니에 입단, 다시 한 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비에나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앞서 2015년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2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5위, 2013년 뮌헨 ARD 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을 수상하며 꾸준히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일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KNN 850-9568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다비드 프레이와 세종솔로이스츠 'Bach and Beyond'



피아노 다비드 프레이



세종솔로이스츠

'제2의 글렌 굴드'라 불리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다비드 프레이가 미국 CNN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받은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동세대 중 가장 감동적인 바흐 연주자'라고 평가받는 다비드 프레이가 'Bach and Beyond'라는 부제로, 요한 제마스티안 바흐와 그의 아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그리고 그를 선망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바흐의 세계를 들려준다.

섬세한 연주와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돋보이는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다비드 프레이는 솔리스트, 협연자, 그리고 실내악 연주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마린 알슘, 피에르 볼레즈,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파보 예르비, 라키르도 무티, 다니엘 가티 등 이 시대 거장들이 이끄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연주하며 그 실력을 입증해온 다비드 프레이는 지난 시즌 BBC 프롬스에서 예사-페카 살로넨이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데 이어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리카르도 무티가 이끄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다. 독일의 저명한 '에코 클래식 프라이즈'로부터 '올해의 연주자상', 루르피아노페스티벌로부터 '젊은연주자상' 등을 수상한 다비드 프레이는 2008년에는 BBC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2004년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는 2위 수상과 함께 캐나다 작품에 대한 최우수 해석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비드 프레이와 호흡을 맞추는 세종솔로이스츠는 지난 1994년 줄리어드옴대 강효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 최정상 기량의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한 현악 오케스트라로, 지금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세계 각지의 언론과 음악평론가들로부터 '보기 드문 응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미국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 자체기획공연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 연주단체로, 링컨 센터의 엘리스 텔리홀, 런던 카도간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했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스펜 음악제의 상임 실내악단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 상주 실내악단으로 활동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2003년 KBS 해외동포상 예술부문, 2008년 제3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기획된 무대이다.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사회 조운범



조운범 피아노



문유은 소프라노



소프라노 김정은



소프라노 강혜정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두 번째 무대가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상반기,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4차례 진행된 시즌 첫 번째 무대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 있는 해설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9월 2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3차례 예정된 이번 시즌에서도 조운범은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기도 한 조운범은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운범의 해설과 함께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전임 지휘자,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예술단(SAC THE LITTLE HARMONY) 기악 지휘자로 있는 정병휘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유섬, 김성은, 강혜정의 협연으로 벨리니, 로시니, 모차르트, 구노, 들리브, 조르다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지휘자 정병휘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고 빈 뮤직페라인 황금홀에서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RSO)를 지휘했다. 오스트

리아 한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발틱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독일 뢰팅엔 여름 음악 페스티벌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그동안 덴마크 라디오 오케스트라, 자그레브 라디오 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 KBS 교향악단 등을 객원지휘한 바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스 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마리아 까닐리아 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독일 'BONN' 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한 바 있다. 소프라노 김성은은 전국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우승, 특별상,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 이태리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우승, 스페인 아라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이태리,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세계 유명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한 바 있다.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은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a Opera Award 수상,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일시**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III. 애(哀)



지휘 오충근



사회 최진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2017 노자와 베토벤-희로애락(喜怒哀樂)' 세 번째 무대 '애(哀)'가 9월 30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 무대를 통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으로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올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노자와 베토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오고 있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4월과 6월, 기쁨(喜)과 노여움(怒)에 이어 슬픔(哀)을 주제로, 인생에 있어 감정을 이해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의 주제인 '슬픔 애(哀)'는 한자로 '입 구(口)'와 '옷 의(衣)'가 합쳐진, 옷깃으로 입을 가리며 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소리 내어 우는 슬픔이 아닌, 울음을 삼키며 속으로 삭히는 드러내지 않는 슬픔을 뜻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슬픔과 절망

의 순간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클래식 명곡들과 철학의 만남을 통해 슬픔(哀)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곡으로 연주되는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은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서도 가장 명쾌한 곡으로 꼽힌다. 사실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던 1812년은 불안한 생계와 귀병, 위병 등으로 몹시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로, 어쩌면 베토벤은 이러한 생계의 슬픔을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 속에 감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짐작케 한다. 이어지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그 특유의 구슬픈 선율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에 삽입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곡으로, 절제된 듯한 슬픔의 감정이 곡 전체를 통해 다가온다.

가사가 없는 노래를 의미하는 '보칼리제', 그 중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는 가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솔로 성악곡으로,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선율로 널리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악기와 앙상블로 편곡, 연주되는 곡이다. 마지막 곡인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비창'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함께 인간의 비통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곡으로 꼽힌다. 이 곡은 사람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도 평가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죽음의 절망적 상황을 묘사한 4악장을 들려준다.

한편, '2017 노자와 베토벤-희로애락(喜怒哀樂)' 마지막 무대인 '락(樂)'은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합창으로 부산에서 하나 된 세상을 이룬다

## 제13회 부산국제합창제

9월 6일(수)~9일(토)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등 부산 전역  
(재)한국합창조직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http://www.busanchoral.org)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7년 축제가 9월 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나흘간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7개국 47개팀 1,600여 명이 부산을 찾아 합창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펼친다. 올해 경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국내 22개팀을 비롯해 33개팀으로, 합창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영화의전당에서 클래식 혼성, 클래식 동성, 민속음악, 팝&가스펠, 청소년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을 진행한다.

2017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9월 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8시 소향씨어터에서 세계 정상급 합창단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올해 합창제 개막무대에 서는 '칸투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남성 8인조 앙상블로, 매년 6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따뜻함과 조화, 그리고 르네상스부터 21세기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레퍼토리로 전 세계 음악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칸투스 공연에 앞서서는 민간봉사단체인 국제로터리가 운영하는 '엔젤 피스예술단'의 우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튿날인 7일에는 지난 2014 부산국제합창제 그랑프리에 빛나는 필리핀의 남성합창단 '알레론'의 공연이 펼쳐진다. 음악감독인 크리스토퍼 앙 아르체오에 의해 2006년에 창단된 알레론은 2013년 8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안드레아 오. 베네레이

선 국제합창축제 보컬 앙상블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10회 부산국제합창제 클래식 동성 부문 금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일본에서 열린 제31회 다카라즈카 국제 챔버 코러스 콘서트에 참가, 민속과 현대 부문 금상을 비롯해 필리핀팀 최초로 종합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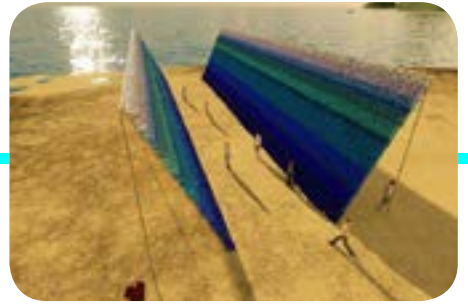
8일에는 한국의 '일 디보'라 불리는 'IBK-유엔젤보이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2010 에든버러 프린지 콘서트를 통해 영국 음악전문일간지 The Herald에서 별 4개 등급을 받은 IBK-유엔젤보이스는 그동안 다양한 세계무대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2017 부산국제합창제 마지막 날인 9일, 영화의전당에서는 5개의 경연 부문에서 우승한 최고의 합창단이 대상을 놓고 겨루는 최종경연과 함께 2017 부산국제합창제 창작합창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필리핀 Ian Gabriel Corpuz의 'Domine Deus Meus' 초연무대가 마련된다. 또한 시상식에 앞서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한 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2개의 축제합창단이 부산국제합창단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제리 맥코이(미국), 안나 피쿠에로(필리핀) 교수의 지휘로 세계인이 합창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합창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참가 합창단들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찾아가는 콘서트'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Ars Ludens: 바다+미술+유희

## 2017 바다미술제

9월 16일(토)~10월 15일(일) 다대포해수욕장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http://www.busanbiennale.org)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인 바다와 현대미술의 조화를 통해 부산만의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행사로 성장해온 2017 부산 바다미술제(예술감독 도태근)가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바다미술제는 지난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후 1996년까지 매년 대중적이면서도 특색있는 야외전시를 선보여왔다. 2002년 부산비엔날레 탄생과 함께 부산비엔날레에 통합되어 개최해 오다 2011년부터 부산만의 독특한 해양환경미술축제로 육성하고자 부산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홀수 해에 독립적으로 개최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이어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또 한번 개최되는 2017 바다미술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부산의 서부권에 예술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계적인 자연환경예술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2017 바다미술제의 전시주제는 'Ars Ludens: 바다+미술+유희'. '아르스 루덴스(Ars Ludens)'는 'Ars(미술)'와 'Ludens(놀이)'가 합쳐진 '유희적 예술'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미술이/미술은/미술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문화학자 요한 호이

징하(Johan Huizinga)가 주장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착안했다. 미술이 놀이로서 유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바다'와 '미술', 그리고 '유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미술이 가진 유희적 속성에 집중한다. 올해 출품되는 42점의 작품 역시 예술의 유희적 성격을 강조한 작품들로 조각, 설치, 영상 작품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인터랙션 작품을 통해 일방적인 관람이 아닌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특히 바다미술제라는 '바다'라는 장소성을 강조한 자연환경미술제로, 다대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고 작품들이 펼쳐진 해수욕장은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가상적 실재(Simulacre)'가 되어 관람객들을 일상을 벗어난 곳으로 이끈다.

이밖에 2017 부산바다미술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주제를 심화하고 담론을 형성한다. 특히 9월 23일 개최되는 학술심포지엄에서는 'Ars Ludens'라는 주제로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예술과 유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Ars Ludens: Sea + Art + Fun*

##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1999-2017 : 인식적 지도 그리기

2017. 7. 28.~12. 10 부산시립미술관



◆ 박미경 화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전시된 것을 취합하고 분류하여 당시 출품작을 중심으로 개별 작가와 작품들을 4개의 소주제로 묶고 각각의 주제가 서로 이어져 전시 작품들에 등장한 핵심요소들을 재맥락화한다. 4개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술. 매체. 대중문화(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반응)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매체와 언어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새로운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즉 가상의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사유와 경험, 표현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의식을 끌어낸다. 과학 기술 발전을 도모한 자본주의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인간상을 만들어 냈고 자본주의 생산력의 진보가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 작가들은 물질과 비물질을 사유하고 인간과 자연, 생태를 고민한다.

### 2. 도시. 공간. 분리(도시 환경 변화와 소외된 삶)

도시의 무한한 개발과 확장은 개개인의 주거와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도시 공간의 변화는 오로지 삶의 풍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도시도 공간을 구획하고 그 경계를 따라 계급적 분리가 진행되어 왔다. 삶을 양 방향으로 대립시키는 현대도시는 재개발과 재생의 명목 하에 급격히 변화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작가들은 도시의 공간 문제에서 장소가 말해주는 삶의 사적 공간들을 목격자와 같은 시선으로 기록한다.

### 3. 일상. 타자. 정체성(징후로서의 일상, 익명의 개인)

1980년대는 개인의 희생이 강요된 집단의 사회였다면 1990년대 이후는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된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일상의 소소함과 억압되었던 작은 역사들이 주목 받고 공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며 사적인 인물로서만 존재하길 강요하며 개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입해 나갔다. 풍요로운 물질 사회는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해 개인에게 박탈감과 함께 획일화된 정체성의 강요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 상실, 보호받지 못하는 미시적인 일상성이 세계의 모순을 드러내고 고립과 소통, 불안과 실존, 자기 소외와 실현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

### 4. 전략. 재검토. 재사유(시스템과 인간, 관념과 제도, 해방의 정치를 위한 전략)

개개인의 많은 문제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로 재사유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유는 '현실의 불행에 대한 항의'이자 새로운 사회 구성에 대한 열망을 내포한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감각적이거나 이성적 방식, 사적이고도 정치적, 심리적이고도 사회적인 형태로 상호 대립을 넘어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현대 작가들은 작품이 드러내려는 개념에 충실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사건과 이슈, 기존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 체계, 제도, 모순, 관념을 재검토하고 재사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4개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으로 20여년간 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재현으로 삶을 재사유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르네상스를 꿈꾸다**

일 시 8월 26일(토)~9월 9일(토) 대극장  
문 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7년 무대.

2일(토) 오후 5:00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만프레드'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콘서트 '만프레드'.

현재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3년 나고야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한 후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함께 아이치현으로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로 있는 초세이 고마쓰의 지휘,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트럼페터 오타비아노 크리스토폴리와의 협연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3일(일) 오후 2:00, 5:00 스페셜 콘서트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부산지역 16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무대.

출연

- 달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박병광)
-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조수진)
- 명륜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황남용)
-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관현악단(지휘/권수정)
- 분포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서양하)
- 오륙도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 오봉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 좌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김대영)
- 형일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지휘/김수현)
- 마르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김세훈)
-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지휘/박중현)
- 울산광역시 영재 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박광식)
- 이인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김하균)
- 베누스토 주니어 오케스트라(지휘/최성호)
- 해운대 선사인 오케스트라(지휘/원준연)

입장료 초대

6일(수) 오후 7:30 메인콘서트 IV '춘몽(春夢)'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벨라루스의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페트로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부수석 단

원 윤경선, 중국 교보 음악가로 현재 중국 연변가무단 관현악단 수석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새남, 주자 안홍철, 비올라와 더블어 중국 전통악기 열후 연주자의 대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앤디 린이 함께하는 창작국악의 밤.

입장료 전석 1만원

7일(목) 오후 4:00 스페셜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스쿨클래식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잉어 토릴 나르베센, 테너 템 비엔코지 메텐가나,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페트로브, 하찌미 시미즈, 플루티스트 겸 피콜로리스트 일디코 유하츠, 기타리스트 페리 슈와크, 튜바이스트 피터 링크가 함께 꾸미는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입장료 초대

7일(목) 오후 7:30 메인콘서트 V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여정'

국내의 유망 연주자들의 경연과 교류 및 우수연주자 발굴을 위한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의 파이널 무대로 마련되는 갈라 콘서트.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선정된 9명의 연주자가 최근 Tel-Aviv Soloists와 함께 Landau 어워드 공연예술 부문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의 마에스트로 바락 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 협연/바이올린 심동영, 트럼펫 박상현, 바이올린 양유정(이상 Young Artist)
- 플루트 김진솔, 소프라노 오예은, 클라리넷 게르시오 타라코나 발리, 바이올린 전수빈, 피아노 노한솔(이상 Artist)

입장료 초대

9일(토) 오후 5:00 메인콘서트 VI  
폐막콘서트 '약속(Promise)'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페스티벌오케스트라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대로 화려했던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무대.

강릉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류석원,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윌슨 엔지의 지휘, 색소폰리스트 요르겐 보브, 크리스티안 라스무센, 살렛 앤더슨, 시몬 버트랜드로 창단된 덴마크 색소폰 콰르텟의 협연으로 음악을 통한 우정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K. 후지하라/약속[세계초연]
- 버트랜드/색소폰 4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 그로스 플라이잉 카누의 이야기
- 차이코프스키/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 브람스/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김명훈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9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김명훈 010-9250-3348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플루트앙상블, 플루트콰르텟 '클랑' 단원으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김명훈 독주회. 헝가리 유학시절 부다페스트에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며 바로크부터 현대곡까지 다

양한 레퍼토리로 연주활동을 펼친 김명훈은 귀국 후 3차례 독주회와 일본 주재 헝가리대사관 초청으로 요코하마 미나미토 미라이홀에서 트리오 연주를 가진 데 이어 부산, 경남지역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바흐/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Wq.83  
페링 파르카스/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옛 헝가리 무곡

이베르/바이올린과 피아노, 플루트를 위한 듀엣 간주곡  
라이네케/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윤디네'  
작품 167

- 피아노/이승윤 ● 바이올린/손은혜

소프라노 박성의 귀국 독창회  
어제를 노래하다

일 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박성의 010-7913-5955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따뜻한 감성으로 청중과 교감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소프라노 박성의 귀국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박성은 독일 유학시절 오페라 무대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 거침없고 실감나는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박성은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동의대학교 영재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이희영
- 테너/최원갑

# Program Guide

##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Cello, All my Life

**일 시** 9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힘찬 음색, 완벽한 기교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낭만적인 첼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명진 교수와 화음을 맞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올리버 케른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연인인가 아내인가'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을 시작으로 파야의 스페인의 향기가 가득한 민속모음곡, 첼로 소나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우수에 젖은 첼로 소나타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파 연주자이자 강단 위의 교수, 그리고 부산 MBC라디오에서 DJ로 활동하기도 한 이명진 교수의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깊이 있는 해설로 청중들에게 보다 폭넓은 감동을 선사한다.

- 피아노/올리버 케른

##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3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떼루 떼루아 떼루아'

**일 시** 9월 10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가야금연주단 010-8545-4816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관현악단 부지휘자,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이경섭의 지휘, 소리꾼 박애리, 아이리쉬 휘슬 연주자 권병호, 줄곧 변지연의 협연으로 위촉 초연곡인 이경섭 곡 '떼루 떼루아 떼루아'를 비롯한 창작곡과 궁중음악, 가야금중주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1부 천년의 소리/천년면세, 새가락별곡, 달하노피곰  
2부 가야금 오케스트라/아리랑 랩소디(이지수 곡), 썩대머리, 사랑가(이지종, 이준호 곡), 시네마천국, 하늘의 움직임은 성 OST, 리베레방고, sing sing sing, 떼루 떼루아 떼루아(이경섭 곡, 위촉 초연곡)

- 단장 및 예술감독/김남순

## 박승훈 & 서영교 듀오 리사이틀

**일 시** 9월 10일 일요일 오후 3: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서영교 010-6886-5896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인 쿤스 칼리지-아론 코플랜드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트럼펫터 박승훈과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과 프랑스 안시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색소

폰니스트 서영교의 듀오 무대.

박승훈은 미국 유학 중 쿤스 칼리지 오케스트라/심포닉밴드, 뉴욕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쿤스 오케스트라, 더 브라스 트리오, 맥스 브라스 쿼텟 단원 및 객원 연주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가져왔다. 서영교는 프랑스 유학 중 두차례 독주회 외에도 안시관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주경험을 쌓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윌리엄 힌스, 앙드레 웨이그네의 한국 초연곡을 비롯해 장 리비에르, 조셉 투린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류성직

##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9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최낙주 010-4536-2351



현재 목관5중주팀인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낙주는 유학시절 독일 유라시아 문화재단 초청

으로 3회의 독주회와 졸업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귀국 후 대구, 부산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차례 독주회와 듀오연주회, 체코 아나첵 챔버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이올로스, 서울 아트플룻, 베네치오오케스트라, 양산청소년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은 최낙주는 현재 경북대학교 및 동대학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장효진
- 친조출연/김나래(플루트)

##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KNN 850-9568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온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과 독자적인 색채로 소통하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은 차기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출연, 문화로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를 열어준다. 지난해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된 KNN방송교향악단은 지휘자 오충근을 초대 예술감독으로 영입, 폭넓은 레퍼토리와 함께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루이 블라스 서곡 작품 95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 26  
프로코피에프/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작품 64

## 양은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양은정 010-5318-0295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으로, 영감이 배어있는 감성과 따뜻한 음색으로 울림있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은정 귀국 독주회.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를 졸업한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입단원으로 활동하다 대구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한 양은정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대구시립예술단 해외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맨해튼 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양은정은 부산청소년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두 차례 협연으로 무대 경험을 쌓았으며, 유학 중에는 맨해튼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며 연주자로서의 실력과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다.

###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 12-3  
프로코피에프/5개의 멜로디 작품 35bis 등

- 피아노/김영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9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미래의 부산지역 문화 예술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연주자 육성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에서 수학중인 유망 음악진공자들에게 협연무대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8명의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특히 다양한 악기와 여러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협주곡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루이스 슈포어/클라리넷 협주곡 제4번 마단조 작품 20 중 제2악장
- 엠마누엘 세주르네/마림바 협주곡 중 제2악장
-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중 제3악장
- Vn. 엘가/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중 제4악장
- 앤더스 코펠/마림바 협주곡 제1번 중 제3악장
-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중 제1악장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중 제3악장  
리스트/죽음의 무도 작품 126

- 지휘/김봉미(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변장현(부산예고 3학년, 클라리넷)  
박찬식(경성대학교 4학년, 마림바)  
박찬미(부산예고 3학년, 바이올린)  
상아린(부산대학교 4학년, 첼로)  
박하은(부산예고 3학년, 마림바)  
김경희(경성대학교 2학년, 플루트)  
신효은(부산대학교 2학년, 바이올린)  
김주현(인제대학교 3학년, 피아노)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기념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 세가지 안전약속'**

일 시 9월 13일(수)-12월 31일(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주말 오후 2:00  
(월요일 휴관) 어린이 전용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4인 가족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 및 태그 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경찰차 폴리라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뽀뽀뽀뽀 색깔약속', '땀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병균야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자연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 극본/김태희 ● 연출/채훈병

**4인 4색 음악회**

일 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최선희, 알타이, 김나영, 메조소프라노 손미숙이 함께하는 4인 4색 음악회.

소프라노 최선희는 경성대학교 음악과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악과, 이태리 C.S.M.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차석단원, 부산가톨릭장로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알타이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있다. 김나영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Master class Diploma를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연산중앙교회 여성찬양대 지휘자 및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손미숙은 중앙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일토수석, 동래중앙교회 시온찬양대 솔리스트로 있다.

- 피아노/이승운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9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국립창원대학교 교수이자 센트럴챔버소사이어티, 트리오 레지미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파비오네 대에서 피아노연주 석사학위, 오리건음악대에서 피아노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미현은 미국의 Goodwin Hall, Beal Concert Hall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영산아트홀,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창원성산아트홀 등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으며 다수의 실내악 무대와 반주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현은 부산 공연에 앞서 9월 12일 창원성산아트홀 소공연장에서 한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프로그램**

- 바흐-부조니/사콘느 라단조 BWV1004
- 베토벤/소나타 가장조 제28번 작품 101
- 리스트/스페인 광시곡 S.254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다비드 프레이와 세종솔로이스츠  
Bach and Beyond**

일 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2의 글렌 Gould'라 불리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다비드 프레이와 세계 무대에서 '보기 드문 응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호평을 받는 세종솔로이스츠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Bach and Beyond'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동시대 중 가장 감동적인 바흐 연주자'라고 평가받는 다비드 프레이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그의 아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그리고 그를 선택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바흐의 세계를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 창단연주회

**일 시** 9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유료티켓 소지자 4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지역문화의 발전과 첼로의 대중화를 위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송희송 교수를 중심으로,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젊은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의 창단연주회. 솔리스트 첼로앙상블 '경상'은 그동안 대중과 평론계의 사랑을 받으며 확고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첼로앙상블인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과 연계, 새롭고 참신한 레퍼토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소통하며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 음악감독/송희송
- 단원/이동렬, 이일세, 김주희, 박고운, 정광준, 하세연, 이지현, 김근혜, 배원, 박성찬, 유종한
- 솔로연주/백재진

##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일 시**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프라임필 사무국 031-392-6419, www.primophil.net



다양한 문화공헌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와 행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온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 지금까지 102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000여 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해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한국 최정상급 소프라노 김순영, 최근 열린음악회의 스타로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리톤 박정민, 2AM 멤버 이창민과 그룹 에이트의 멤버 이현으로 구성된 남성 듀오 옴가 출연.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에서부터 감동적인 뮤지컬 넘버,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과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곡 해설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윤승엽(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2

**일 시**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초, 중, 고, 대학생, 다자녀가족,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던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시즌 두 번째 무대.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전임 지휘자,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예술단(SAC THE LITTLE HARMONY) 기악 지휘자로 있는 정병희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유성, 김성은, 강혜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벨리니, 로시니, 모차르트, 구노, 들리브, 조르다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동방의 등불

**일 시** 9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재)유나이티드 문화재단 02-553-0377



지난 2008년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창립과 함께 국내외 80여 명 전문 음악인들로 창단한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상임지휘자 김봉미가 이끄는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유나이티드 패밀리 콘서트를 가져왔으며, 2010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하얼빈 음악청 음악회, KIH 월드빌리지 세계 언어 문화공동체와 함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음악회, 2014년 베트남 HURC재단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소프라노/김지현 ● 테너/이정원
- 트럼펫/김완선 ● 바이올린/김현지
- 연주/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합창/위너오페라합창단

## 강성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강성은 010-5066-2718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외래교수이자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강성은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1등, 음악협회 전국 학생콩쿠르 1등, 김해 국제음악콩쿠르 1등 없는 2등,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에서 인상한 바 있는 강성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우수 청소년 음악회, 경성오케스트라,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내림가장조 K.127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제2번 올림단조 작품 3  
바흐-부조니/사르논느  
그라나도스/시작 왈츠  
슈만/반 사육제의 어린광대 작품 26 등

## 소프라노 김시하 독창회

**일 시**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우리아트 920-9545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A.I.D.M 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 ARAM 아카데미 가극과 음악해석, 오페라 전문과정, A.I.Arts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김시하 독창회.

Leopold Mugnone 국제콩쿠르 1등, 도니제티 특별상, Giulietta Simonato 국제콩쿠르 2등, Archimede 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는 김시하는 그동안 3차례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주역, Santa Casa di Sariano 주최 500주년 기념음악회 모차르트 C장조 미사곡 독창자, Teatro Sociale di Bergamo 주최 도니제티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이탈리아,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다.

- 피아노/최정윤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바리톤/한정현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사)기회의학숙 창립 20주년,  
(사)한국콜핑협회 창립 30주년

자선음악회

일 시 9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사)한국콜핑협회 010-9984-7169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배우고 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는 비전으로 창립한 (사)기회의학숙과 청소년교육, 장학활동, 의료봉사, 문화 및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좋은 삶 가꾸기 운동,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한국콜핑협

회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아니운서 문선정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 피아니스트 박가람, 테너 허동권, 소프라노 왕기현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은 맑은 눈 희망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경, 개인수술 비용으로 사용된다.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the Yoon 010-9025-2012



현재 앙상블그룹 '더 블로섬' 멤버, 목관 6중주 앙상블 '부산 우드윈드 소사이어티'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교로 재학 중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 오하

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김윤희는 어려서부터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유학시절에도 수차례 콩쿠르에서 입상, 뉴욕 카네기홀 Weill Recital Hall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2014년 귀국 후 부산과 서울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김윤희는 그동안 독주회 외에도 클라리넷과의 듀오 리사이틀, 실내악 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김윤희는 현재 경남예술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계명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피아노/심정자

유엔젤 보이스(Uangel Voice)

일 시 9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한기희꿈 연구소 703-4106, 4108



투명하고 맑은 천상의 소리 클래식계의 아이돌 유엔젤 보이스(Uangel Voice)의 무대. 김향록, 손예빈, 김민석, 김경덕, 정동인 등 5명의 멤버로 구성된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 보이스는 지난 2010 에든버러 프린지 콘서트를 통해 영

국 음악전문일간지 The Herald에서 별4개 등급을 받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3회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으로 부산관광과 먼저 만나는 유엔젤 보이스는 그동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아프리카·중동합의회 출범식을 축하하는 단독 콘서트를 비롯해 캄보디아 왕실초청 '한-캄 친선강화 클래식 콘서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의 엘(A) 월드디즈니 콘서트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Emotion

일 시 9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타치의 명확함과 자유로운 건반의 컨트롤로 음악의 색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연주자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석사 및 Graduate Diploma, 론지음악원 Artist Diploma, 보스턴대학교 피아노연

주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최고의 공클을 석권한 후 이태리 Citta di Cantu 콩쿠르, Voti-Valescia 콩쿠르, BIA 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6월 피아노의 신악 성서라 불리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2곡)연주회 그 첫 대장정을 시작 베토벤의 명확한 해석과 빛나는 음악성으로 청중들의 찬사를 받은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스크리야빈, 슈만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3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21세기 민족음악을 이끌어 나갈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제 43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프로그램

-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 정대석/가문고협주곡 '수리재'
- 강봉천(편곡)/박대성류 아쟁산조를 위한 국악관현악 정동화/25현 가야금협주곡 '찬기파랑가'
- 정대석(편곡)/가야금병창 '흥부가 중 제비노정기'
- 이경섭/모듬북협주곡 '타'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협연/대금 안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거문고 이승은(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아쟁 김평진(부산대학교 3학년) 가야금 문정은(부산대학교 4학년) 가야금병창 엄예진(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신아름(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모듬북 손기영(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정시우(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조해진(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



## 권경미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권경미 010-6575-5837



다양한 음색에 따른 섬세한 터치와 집중적인 연주, 독일 음악의 아카데믹한 음악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권경미 귀국 독주회.

동덕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Master)을 졸업한 권경미는 그동안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주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대학부 3위(2006), 부산피아노유모회 주최 'Duo 콩쿠르' 대학부 1위 전체 금상(2007), 일반부 1위 전체 특상(2010),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주최 '우수신인 피아노 콩쿠르' 신인부 2위(2011)에 입상했으며, 다수 콩쿠르와 Hans-Christian Wille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음악적 소양을 쌓아왔다.

###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5번 사장조 BWV. 829  
 하이든/소나타 Hob. XVI49  
 드뷔시/전주곡 1, 2중에서 2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심포니 No. 5-II

**일 시** 9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만을 선정, 바로크에서부터 고전과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7년 프로젝트 '심포니 No. 5' 두 번째 무대.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양옥진, 오페라계의 새로운 프리마돈나로 떠오르는 소프라노 김미주, 바리톤 박정섭의 협연으로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을 비롯해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생상스의 첼로협주곡 등 교향곡에서부터 협주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베토벤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는 교향곡 제5번의 주인공은 멘델스존으로, 1830년 종교개혁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위해 멘델스존이 작곡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가톨릭교회의 항의로 축제가 무산되면

서 이후 1832년 초연무대를 가졌던 교향곡 제5번을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히 들려준다.

###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아이 거리의 만물박사'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여자예요'  
 생상스/첼로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 33  
 멘델스존/교향곡 제5번 라장조 작품 107 '종교개혁'

- 지휘/김봉미
- 첼로/양옥진
- 소프라노/김미주
- 바리톤/박정섭



## 부산시립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가을, 숲, 그리움

**일 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가을의 서정을 담아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가을, 숲, 그리움'.

부산시립합창단은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를 통해 무대에서는 기능적인 화성과 아름다운 선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라인 버거의 '칸투스 미사'를 시작으로 신작 가곡과 가을을 노래하는 가곡합창,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가곡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요제프 라인베르거/미사 내림마장조 작품 109 '칸투스' 신작 가곡합창곡/가사리(조해영 곡, 더불어 숲김준범 곡) 가을을 노래하는 가곡 합창/가을 그리움(윤경미 곡, 가을김준범 곡) 등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윤)

## 피아니스트 홍지혜 반주 리사이틀 프란츠 슈베르트

**일 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5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국립오페라단 음악코치를 역임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반주과 초빙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홍지혜의 반주 리사이틀.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 음악원 조교과정 이수 및 POSTO-DIPLOMA를 졸업한 홍지혜는 BELLA 국제콩쿠르 1등, ANTON RUBINSTEIN 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성남아트센터, 서울CTS오페라단, 솔로페라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솔리스트 중심의 음악회가 아닌 피아니스트 홍지혜의 음악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고은경, 첼리스트 김동환 등 최고의 연주자와 함께 슈베르트 음악의 밤을 마련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III. 애(哀)'

**일 시** 9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개공연 동시구매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2017 노자와 베토벤\_희로애락(喜怒哀樂)' 세 번째 무대 '애(哀)'.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클래식 명곡들과 철학의 만남을 통해 슬픔(哀)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휘/오충근
- 특별출연/최진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2017 제8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르네상스를 꿈꾸다

**일 시** 8월 26일(토)~9월 9일(토)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사상다누리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외  
**문 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co.kr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를 비롯 전 세계 20여 개국 1,000여 명의 연주자들이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4일(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메인콘서트 II '스코틀랜드(Scottish)'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무대 주인공이었던 일본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  
**입장료/전석** 1만원

5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III '사계(四季)'

현재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로 있는 초세이 고마쯔의 지휘, 튜바주자 피터 링크, 바이안주자 에베게니 페트로브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입장료**/VIP 2만원, R석 1만원, S석(2층) 5천원

6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클래식 음악 마술쇼

지휘자 로버트 발트원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 왕원정, 그리고 마술사 고두영이 함께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클래식 음악 마술쇼.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연주와 마술사 고두영의 클래식 음악 마술쇼 '음악은 살아있다'가 펼쳐진다.  
**입장료/전석** 1만원

7일(목) 오후 2:30 사상다누리홀  
앙상블콘서트 I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의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앙상블콘서트 첫 번째 무대. 소프라노 잉어 토릴 나르베센, 테너 템비엔코지 메텐가나,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페테로브의 무대로, 오페라 아리아와 쇼팽의 왈츠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입장료/전석** 초대

7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앙상블콘서트 II

피아니스트 페이-페이 동,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체스카 드 파스칼레, 비올리니스트 앤디 린, 첼리스트 줄리엣 헤를린으로 구성된 알라테이아 피아노 콰르텟과 색소포니스트 요르겐 보브, 크리스티안 라스무센, 시몬 버트랜드, 살럿 앤더슨의 덴마크 색소폰 콰르텟이 출연,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VIP 2만원, R석 1만원, S석(2층) 5천원

8일(금)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앙상블콘서트 III

덴마크 색소폰 콰르텟과 소프라노 잉어 토릴 나르베센, 테너 템비엔코지 메텐가나, 바이안주자 에베게니 페트로브가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입장료/전석** 초대

8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메인콘서트 VI '영웅(Eroica)'

클래식음악을 통한 행복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지난 2014년 창단된 홍콩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 무대로 마련되는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있는 윌슨 엔지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체스카 드 파스칼레, 첼리스트 줄리엣 헤를린, 피아니스트 페이-페이 동의 협연으로 베토벤 음악의 밤으로 꾸며진다.  
**입장료**/R석 1만원, S석 5천원

제3회 소프라노 조윤정 독창회

**일 시** 9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조윤정 010-4353-6634



연세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국립음악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 비제바노, 독일 다름슈타트, 헤펜하임 아카데미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소프라노 조윤정 독창회. 조윤정은 오페라 '마술피리', '몽유병의 여인', '라 보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트로바토레' 등 오페라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KB재단 청소년음악대학, 동의대학교 영재원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아리아'  
베르디/오페라 '해적' 중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베르디/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고평습니다' 등 수록  
● 피아노/최승희 ● 바리톤/서영민  
● 해설/김정훈

심어라 첼로 독주회

**일 시** 9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the Yoon 010-9025-2012



이사벨여자중학교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 노보시비르스크 중앙음악학교를 졸업하고 Moscow Central Music School P.I.Tchaikovsky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첼리스트 심어라 독주회.

지난 2009년 11월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활동을 시작한 심어라는 매년 독주회와 더불어 해설이 있는 음악회, 2015년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음악회(러시아, 울란우데), 광복 70주년 기념 한-몽 친선음악회(몽골, 울란바타르)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심어라는 현재 소블리스 트리오, 부산신포니에타, 무지키바바, 코리아솔로이츠 부수석으로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을 선물해오고 있다.

● 피아노/서혜리

해운대구립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해운대구청 749-4064  
단장 010-5473-0734



지난 2005년 11월 해운대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된 후 2013년 5월 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으로 승격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해군 제3함대 나리사랑 가족사랑 음악회, 달빛음악제, 센텀광장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2014 부산어머니 합창페스티벌 금상, 2016 대구세계합창경연대회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합창곡들과 한국, 일본,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위스, 체코 등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나라의 작곡가들의 현대합창곡들을 소개한다.  
● 지휘/노하나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 6월(제618회) 정우영과 클라리넷 두 번째 이야기 '독일&낭만'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및 지휘자, 부산클라리넷과이어, 동아 시노투스 윈드앙상블, 부산다이나믹심포니밴드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과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명실의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13일(제619회) JM앙상블 가족음악회 '사랑'

'Joy of Music'의 약자로, 음악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JM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팀 특유의 음색이 돋보이는 따뜻한 하모니와 진정한 성 있는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그림작가/이은희 ● 나레이션/이지현
- 마임/김세진 ● 첼로/정학선
- 플루트/황미리 ● 피아노/유영옥
- 스페셜 게스트/소프라노 앙수빈, 피아노 윤혜연

### 20일(제620회) BS오피스 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부산과 서울, 경남지역 등에서 각 분야의 솔리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이 결성된 BS오피스 앙상블의 13번째 정기연주회. BS오피스 앙상블은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다양한 편성과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실내악 음악의 저변확대와 음악적 성취를 추구해오고 있다.

- 연주(시영민(바리톤), 백재진, 여주현(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유진(첼로), 윤민우(더블 베이스), 구민정, 김중현, 유영옥, 최은주(피아노), 정주아(피리))

### 27일(제621회) 전통과 창작에 대한 두 개의 시선 '고우 프로젝트'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으로 국립부산국악원 창단부터 함께 해온 오교선(대금), 박은하(거문고), 진민진(아쟁)이 미래에 대한 음악적 고민을 함께 하고자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고우(GO友)'의 무대.

- 객원출연/강정용(타악), 차민영(피아노)

## 센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합창! 영화를 노래하다

**일 시** 9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센텀합창단 010-3136-7798



지난 2007년 2월 창단된 후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부산 최고의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센텀합창단 정기연주회. 센텀합창단은 매년 부산합창제를 비롯 소양보육원 기금 마련 콘서트, 마루국제음악제 프리지 콘서트 등 다양한 연주활동과 지역 내 음악봉사 활동을 꾸준히 가져왔으며, 지난해 부산국제음악제에서 베토벤 '코랄환타지'를 연주한 데 이어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무대에 올려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크린 속 영화음악으로 등장하는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합창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이철성
- 반주/박재나

##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010-4842-6688

사단법인 예술전문단체인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가 창단한 민간 청소년교향악단인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의 제20회 정기연주회. 지난 1998년 '부산리틀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는 오랜 공백기 후 2008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후 매주 전문 강사진에 의한 파트별 개별 연습과 합주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인코리아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있는 김정민의 지휘로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 지휘/김정민
- 협연/박동현(동성초등 6학년)  
이다은(부산예고 2학년)

## 제2회 부산솔로이스초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솔로이스초앙상블 시그니처 콘서트 2 with 김충희

**일 시** 9월 3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부산솔로이스초앙상블 010-8524-0069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초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이스초앙상블은 다양한 편성으로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팝, 국악과의 크로스 오버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과 함께한 시그니처 콘서트 첫 번째 무대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2015년 독일 튜링엔주 최고의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충희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진행/손지현(부산MBC 아나운서)
- 리더 겸 바이올린/정운봉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일 시** 9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2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정영주, 허혜정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피아노 트리오 BE 창단멤버로 활동 중인 정영주는 귀국 후 독주회를 시작으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동문연주회, 듀오 리사이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학회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와 베를린 국립음대,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허정애는 독일 유학시절부터 현대작품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최근 '광복 70주년 기념 K-Classic Piano Tour' 시리즈에서 강은구의 피아노독주곡을 세계 초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제6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 시 9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연주를 맡은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 수준높은 연주를 선사한다.

지난 1983년 나고야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 1997년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재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명예지휘자 쇼세이 고마쓰가 지휘하고 세계 정상급의 비올리스트 다니엘 팔미지오, 촉망받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마르타 코발지크의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나장조  
멘델스존/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가단조

2017년 을숙도 해피콘서트  
Ensemble's Night

일 시 9월 5일(화)~8일(금)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을숙도 해피콘서트 2017년 무대, 올해 무대에서는 더 솔로이스츠, 첼리스트인, 아모스 앙상블, 아르스 현악4중주단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4개의 앙상블팀이 출연,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행복

바이러스를 선사한다.

5일(화) 더 솔로이스츠 'B&B Day'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창단한 더 솔로이스츠는 그동안 4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실내악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악4중주, 목관5중주 등 유익으로도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트리오 내림나장조 작품 97 '대공'  
브람스/피아노트리오 나장조 작품 8  
● 연주/피아노 정성훈, 바이올린 김준영, 첼로 정중수

6일(수) 첼리스트인 '올림'

지난 2015년 젊은 첼리스트들로 결성된 부산 최초의 첼로앙상블인 첼리스트인의 무대, 독일어로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첼리스트인은 지난해 4월과 5월, 경주와 부산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연주/정중수, 최창훈, 김무니, 우라라, 박예리나, 신정성, 오현진, 김기량, 이민지

7일(목) 아모스 앙상블 '사랑의 향기'

지난 2015년 4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장애인 단체, 미혼모 시설, 보육원, 요양원 등 소외계층을 찾아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R. 폭스/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작품 9  
비발디/‘사계’ 중 ‘여름’  
사라 본/러브 콘체르토 등 수록

8일(금) 아르스 현악4중주단 '가을날의 행복'

지난 2001년 창단한 부산의 대표적인 현악4중주단으로, 그동안 16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 MBC 창사 기념 목요일음악회, (사)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축제, 영화의전당 실내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34  
쇼스타코비치/피아노 5중주 사단조 작품 57  
● 연주/바이올린 조현미, 서은아, 비올라 이성호, 첼로 강경희  
● 클라리넷/장재혁 ● 피아노/조현선

송유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9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 740-5833



테크닉과 음악성을 두루 갖춘 차세대 한국 피아노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 피아니스트로 기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유진 독주회.

부산 출생으로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음악원 대학과정, 피바디음악원 대학원 과정,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거쳐 미국 맨하탄음대에서 프로페셔널 스터디과정을 졸업한 송유진은 지난 1910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제6회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 예술의전당 주최 'SAC 아티스트 시리즈' 독주회, KBS 제1FM '젊은 연주자 시리즈' 독주회 실황방송,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부산 연주인 시리즈, 2016 세계를 빛낸 부산 연주인 시리즈, 2017 애플루트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일 시 9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최대우 010-2869-678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Fausto Torrefranca 국립음악원, 로마 아카데미 diploma(성악), A.I.A.R.T 아카데미 diploma(합창 지휘)를 취득한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부산 CBS 성악콩쿠르 금상, 고태국 성악콩쿠르 3위 입상한 바 있는 최대우는 그동안 두 차례 독창회를 비롯 제회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후원 이탈리아 도시 순회연주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부산대학교 60주년 기념 오페라 '마탄의 사수', 2008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오페라 '신데렐라', 2009 창작오페라 '히어로 베토벤', 2011~2015 울산 창작뮤지컬 '태화강' 등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왔다.

● 해설/이진희 ● 소프라노/김미정  
● 피아노/안준희

제4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9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협회(회장 고정화)가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1960년대부터 그만의 독특한 한국적 음악어법과 기법으로 음악 전 장르에 걸쳐 3,0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한 원로작곡가 김국진을 비롯해 현재 향신회 회장, 음악동인 땀 회장,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세일, 2011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하고 현재 향신회, 한겨레작곡가협회 회원으로 있는 하순봉, 서울예술대학교, musiCon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보현, 21세기악회, 향신회, musiCon 회원으로 활동하는 방희연 등이 작곡한 창작곡을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방희연/대지 위에서  
하순봉/오케스트라를 위한 수(崇)  
오세일/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어떤 가족'  
김보현/화엄(華嚴, 2017)  
김국진/高麗人(고려인)들 서곡  
● 지휘/윤상운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제26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7767-4390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대학교 출신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주제가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악기와 함께하는 친숙한 연주곡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 출연/오세민, 박소영, 양종근, 서훈하, 양성희, 윤풍원, 김경희, 조현수, 김양자, 하병욱
- 피아노/이현주, 이경미
- 클라식기타/고충진
- 아코디언/오영진
- 바이올린/김성빈, 김영주
- 첼로/박현영, 하유나
- 클라리넷/유지훈

## 두레라움 명품 실내악 시리즈 II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국

**일 시** 9월 10일 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의 무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영국 런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의 초빙교수이자 한국 문화 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양성원은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초청이 끊이지 않는 아티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13년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전국 투어 대성공을 거둔 양성원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봉스쿠르에서 녹음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음반 발매에 맞춰 마련한 자리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사랑을 노래하다

**일 시** 9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제노바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박소연은 그동안 오페라 '카르멘', '신데렐라', '아이디', '리골레토', '헨젤과 그레텔', '에브게니 오네긴', '친구 프릿츠', '춘향전', '몽유병 여인', '박쥐', '장화왕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프로그램**  
 파야/7개의 스페인 모음곡  
 김동진/진달래꽃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허버네라, 꽃노래  
 비제/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목소리에 내마음이 열리고 등 수곡  
 ● 피아노/이현주 ● 특별출연/테너 조윤환

## 2017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처음으로 재즈를 만나다 읍 반 라인 트리오 (Joep van Rhijn Trio)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 잔잔한 재즈 선율 속에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처음으로 재즈를 만나다'. 네덜란드 흐로닝엔 왕립 음악원 재학 당시 한국의 재즈뮤지션들과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한국에서의 연주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읍 반 라인 트리오의 올산재즈페스티벌, 재즈인서울,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이번 무대에 함께 서는 전용준, 송인섭과 지난해 국내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더욱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루보체 레이디 싱어즈 창단연주회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루보체 레이디 싱어즈 010-9968-0535



지난 2015년 11월 창단된 후 그동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희망의 음악회, 해운대 백병원 힐링음악회, 성일 여고 고3 수험생을 위한 가을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온 루보체 레이디 싱어즈의 창단무대.

- 지휘자 권영기가 이끄는 루보체 레이디 싱어즈는 창단연주회에 이어 9월 20일 중국 텐진에서 교류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단장/최영은
  - 지휘/권영기 ● 반주/강지원
  - 찬조출연/피아니스트 박유미, 해빈싱어즈

## 유혜성 귀국 플루트 독주회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유혜성 010-7933-8800



인제대학교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 Master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플루트협회 이사, IF플루트앙상블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혜성 귀국 독주회. 김해국제음악제(GIMF) 신인음악회로 일찍이 데뷔, 그동안 제주국제관악제(JIWEF),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 창원시립교향악단 등과의 협연무대, 2018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 음악회 'Plus in Pyeongchang Concert' 등에 출연한 바 있는 유혜성은 국내 무대 뿐 아니라 2010 Guam Music Festival, 2011 Thailand Music Festival, 2011, 2012 미국 라스베가스 한국문화원 초청연주, 2017 AFF Australian Flute Festival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유혜성은 현재 인제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플루트/오신정 ● 피아노/이수정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작곡그룹 An-i Stimmung 제17회 작품발표회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영상과 실내악의 향연**

**일 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작곡그룹 An-i Stimmung  
017-568-2687, 010-8212-0222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은항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있는 작곡가 조희주를 대표로, 작곡가 박기섭, 진영민, 진소영, 정지영, 김유리, 주창근, 황선영으로 구성된 작곡그룹 An-i Stimmung의 17번째 작품발표회.

지난 2000년 9월 26일 창단 연주회 '관현악곡, 성악곡, 피아노협주곡'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로 매년 작품발표회를 가져온 작곡그룹 An-i Stimmung은 이번 무대에서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영상과 실내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조희주 대표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박기섭, 경북대학교 교수 진영민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제54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8일-19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165-1219

지난 1990년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 단체로, 현재 피아니스트 360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해외 초청 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 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이번 무대에서 첫날인 18일에는 부산-제주 피아노듀오협회 교류음악회가, 19일에는 1900년 이후 출생한 작곡가들의 새로운 곡을 감상할 수 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20세기 피아노 듀오음악회가 펼쳐진다.

**18일 부산-제주 피아노듀오협회 교류 음악회**

- 연주/최지은, 김정은, 권혜령, 김지령, 이동선, 박선혜, 김소형, 김성숙, 최은희, 성민주(부산피아노듀오협회), 박순방, 이민, 서사라, 이미라, 최유정, 김나영(제주피아노듀오협회)

**19일 해설과 함께하는 20세기 피아노 듀오음악회**

- 연주/김유진&전숙영, 김은희&정혜은, 정은정&최정운, 손선경&어숙진, 김주리&김성희, 신애정&박선재, 박윤정&정경아

**한낮의 유:콘서트  
2017 한가위특집 '남상일 100분쇼'**

**일 시**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부 500-5222



민족의 최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소리와 맛을 아는 진정한 소리꾼 남상일 초청으로 마련되는 '한낮의 유:콘서트' 9월 무대. 남상일, 남상일 국악단, 풍물팀 시공간, 무용단 등 30여 명이 출연하는 대형무대로, 판소리는 물론 대중국악이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이번 공연은 남상일 특유의 걸쭉한 입담과 다재다능한 매력, 차별화된 구성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흥과 신명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흘러간 옛노래 '먼 데서 오신 손님, 알뜰한 당신, 여자의 일생', 민요 '장타령', 부모님찬가, 축연무, 창극 한 대목 '심방사 눈뜨는 대목', 판굿, 불후의 명곡 '허공, 고장난 벽시계', 민요연곡

- 게스트/소리꾼 김현정

**마리아치 밴드 내한공연**

**일 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4만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aum.org



'클래식 마리아치 음악'을 주창하며 전통 멕시코 음악과 클래식음악을 연주하는 마리아치 밴드 'Mariachi Champaña Nevín' 내한공연. 작곡가이자 트럼펫 연주자 제프 네빈이 이끄는 'Mariachi Champaña Nevín'는 그동안 미국, 멕시코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마리아치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Pasión Mexicana' 등을 작곡, 발표하며 클래식과 멕시코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멕시코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마리아치 밴드의 무대를 감상할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KBS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교류음악회  
함께 걸어 좋은 길**

**일 시**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KBS부산어린이합창단 010-5533-7706



지역 문화발전과 아름다운 동요 보급으로 참된 어린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995년 광주·부산방송국이 시작, 매년 각 지역국을 순회하며 개최해 온 전국KBS어린이합창제는 12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1월 새롭게 시작, 합창제의 출발지였던 부산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광주, 전주, 제주 등 4개 지역국 KBS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하고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동요의 하모니 속에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2017 최희연 해금독주회  
취타와 산조**

**일 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초대  
**문의** 최희연 010-2567-164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해금연구회 운영위원,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있는 해금주자 최희연 독주회. 1998년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 독주회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해금연구회,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효원국악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 등과의 협연무대, 서울시 교육청 주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레저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최희연은 서울시 교육청 주관 그룹 '뚜띠(TUTTI)' 해금연주자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KBS 클래식FM '흥겨운 한마당' 해설자인 윤중강의 해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김현승(가야금), 한국거문고양상봉 회원 주운정(거문고), 부산대학교 교수 박환영(장구)과 함께 취타와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들려준다.

##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8회 프롬나드 콘서트 'Last Autumn'

**일 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9월 무대, 가을로 접어드는 9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양경아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피아졸라의 사계 중 '가을' 등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가을'  
피아졸라/사계 중 '가을'  
차이콥스키/감상적 왈츠 등 수곡  
● 예술감독/오충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 연극 | Play

##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창작뮤지컬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일 시** 8월 24일(목)~9월 1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일요일 공연없음)  
일광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가마골소극장 723-0568



올해 7월, 부산 기장에 새롭게 등지를 튼 가마골소극장의 개관 기념해 마련하는 개관기념공연 3탄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의 시편을 뮤지컬로 엮은 이번 작품은 지난 2014년 '서시'라는 제목으로 초연을 가진 후 2015년 재연을 올렸다.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구조를 단순화하고 음악을 강화하여 부산과 서울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작, 연출/이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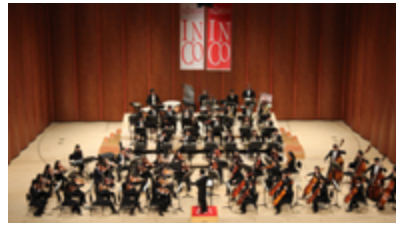
올해 7월, 부산 기장에 새롭게 등지를 튼 가마골소극장의 개관 기념해 마련하는 개관기념공연 3탄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의 시편을 뮤지컬로 엮은 이번 작품은 지난 2014년 '서시'라는 제목으로 초연을 가진 후 2015년 재연을 올렸다.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구조를 단순화하고 음악을 강화하여 부산과 서울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7월, 부산 기장에 새롭게 등지를 튼 가마골소극장의 개관 기념해 마련하는 개관기념공연 3탄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의 시편을 뮤지컬로 엮은 이번 작품은 지난 2014년 '서시'라는 제목으로 초연을 가진 후 2015년 재연을 올렸다.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구조를 단순화하고 음악을 강화하여 부산과 서울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작, 연출/이재경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나간 여행의 회상

**일 시** 9월 28일 목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울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9월 무대 '지나간 여행의 회상'. 지난 1996년에 창단된 후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으로 올해부터 울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서정적이면서도 풍부한 감성적 기질로 친근한 음악미를 품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협연으로 지나간 여름과 여행지에서 느낀 아쉬움과 회상,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만나는 설렘과 기대를 클래식음악을 통해 전해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한여름 밤의 꿈' 서곡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멘델스존/교향곡 제4번

## 연극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

**일 시** 8월 25일(금)~10월 9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1만원, 주말 1만2천원)  
**문의**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유쾌, 상쾌, 통쾌한 휴먼 코믹연극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 사고뭉치 불량경찰 최상연은 오늘도 빵을 뜯기 위해 어김없이 거리를 헤맨다. 그녀의 타킷은 오로지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벌금을 빚자해 약간의 대가를 요구한 뒤 빵을 뜯는 양아치 경찰 최성연을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빵치라 부른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청장 와이프로부터 빵을 뜯다 걸린 최성연은 문책성 발령으로 달동네 민원실로 쫓겨가게 되고, 그렇게 토닥 토닥 민원봉사실로 오게 된 그녀는 그 곳에서 온갖 희한한 민원들을 처리해나가기 시작하는데...

● 작, 연출/민혁

## '한국창작합창 21' 2017년 제12회 정기 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VIII

**일 시** 9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총무이사 권태우 010-7600-4514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창작합창 21의 12번째 정기작품 발표회.

최삼화, 김종욱, 오세일, 김성재, 황장수, 임지연, 김종태, 임록, 김수진, 조혜선, 진소영, 정혜란, 권태우 등 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과 가곡을,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합창단인 하모니합창단이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람이 오는 길(최삼화 곡), 이름 없는 숲길에서(김종욱 곡), 개개비연가(오세일 곡), 약속(김성재 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황장수 곡), 모든 만물들은(임지연 곡), 뜬 손길(김종태 곡), Lit up my Eyes(임록 곡), 동피랑 이야기 2(김수진 곡), 복수초(조혜선 곡), 아름다운 길(진소영 곡), 기도의 노래(정혜란 곡), 파도(권태우 곡)

## 연극 '올드 브라더미싱'

**일 시** 9월 25일(월)~30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한결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문화기획 ACTs 010-9701-0712



2014년 창단공연 '거기, 두루마율이 있다'로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문화판 '모이러' 세 번째 공연 '올드 브라더미싱'.

지루한 장마,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한 가족이 모인다. 제사 준비와 아버지 기일 때면 걸려오는 전화를 둘러싼 가족의 대화는 어느덧 서로의 상처를 덧내는 화살로 변하고, 각자 감추고 있던 깊은 내면의 소리를 쏟아내는데...

우리시대, 가족신화의 의미를 묻는 '올드 브라더미싱'은 너무 평범하여 가슴 아픈 가족의 자화상을 연필 있는 배우들의 섬세한 일상 연기와 감각적 이미지의 결합으로 담아낸다.

● 작, 연출/김숙경  
● 출연/김혜정, 진선미, 정애경, 홍세영, 박초현, 김아름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극단 해풍 2017 기획공연  
**집**

**일 시** 8월 30일(수)~9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창조문화활력센터 소극장 624  
**입장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극단 해풍 070-7346-714



지난 2011년 부산의 연극발전을 위해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기치로 창단한 극단 해풍의 2017 기획공연 '집'. 영화 '살인의 추억' 원작으로 유명한 '날 보러와요'의 극작가이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김광림의 '집'은 불행한 세상에 숨이 막혀 사는 오늘날 한국 연극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극 속에 연극이 있고 연극 속의 연극이 연극을 이야기한다.

- 연출/번지영(예술집단 Von 대표)
- 인무/강용기(라운현대무용단 대표)
- 출연/이상우, 이권아, 최신비, 구선옥, 류현희, 백민철
- 특별출연/김문홍

무용 | Dance

흥신자의 거울(The mirror)

**일 시** 9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 5천원, 학생 1만 5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난 1973년 뉴욕댄스시어터 워크숍에서 '제레' 안무가 및 무용수로 데뷔하며 동양적 전위무용의 선구자로 명성을 떨쳤던 '구도의 춤꾼' 흥신자가 선보이는 자유를 향한 사유의 춤 '거울'. 세계 18인의 무용가로서 손꼽히는 1세대 전위예술가 흥신자는 그동안 안무가이자 무용가, 명상가, 보컬리스트, 작가로 활동해왔으며, 1982년 '오늘의 여인상', 1989년 '중앙문화대상', 1996년 '김수근 문화상', 1997년 '우경문화예술상', 2003년 '대한민국 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거울(mirror), 비(rain), 정원(Garden), 여정(journey)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군더더기 없는 춤사위에 삶에 대한 철학적 주제들을 모던하게 담아내면서 시각적으로 아방가르드적 색채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창작연극 '유도소년'

**일 시** 9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지난 2014년 초연, 2015년 재연 당시 전 회차 매진 사례와 평균 객석점유율 104%를 기록하는 등 대학로에서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연극 '유도소년'. 전복체고 유도선수 '경찬'이 1997년 고교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뜨겁고도 뜻깊게 그려낸 '유도소년'은 유도선수 출신인 작가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사실적인 에피소드와 훈련을 통해 재연한 배우들의 사실적인 유도, 복싱, 배드민턴 장면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1990년대가 배경이라 '연극판 응답하라'로 불리는 '유도소년'은 극 중에 HOT의 '캔디', UP의 '뿌요뿌요', 젝스키스의 '폼생폼사' 등 1990년대 후반을 풍미한 히트곡들이 삽입되면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며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영화 | Movie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작품67**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밤베르크 교향악단

**일 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전화예매 필수)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공연영상을 즐기고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9월 상영회. 이번 상영회에서는 2016년도 클래식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음악인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첫 내한공연 실황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독일 오케스트라의 표본으로 꼽히는 밤베르크 교향악단과 아흔을 앞둔 관록의 거장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정통 독일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운명 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을 감상할 수 있다.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일 시** 9월 19일~20일 화-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20년 통연 신화를 세운 뮤지컬 코미디극 '넌센스' 미국의 극작가 단 고킨이 대본, 작곡, 연출까지 맡은 '넌센스'는 1985년 12월 브로드웨이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되고 있는 브로드웨이 최장기 흥행 뮤지컬로, 국내에서는 지난 1991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천만 관객 신화를 달성한 작품이다. 번덕스러운 원장수녀 메리 레지나, 터프한 수녀원 2인자 교유담담 허버트, 큰 십자기에 머리를 맞아 기억을 잃은 앤네지아, 언더스터디지만 솔로무대의 꿈을 꾸고 있는 로버트 앤, 귀여운 발레리나 예비수녀 메리 레오 등 못 말리는 다섯 수녀의 배꼽잡는 장례비 마련 프로젝트가 날카로운 풍자 속에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펼쳐진다.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목관악기의 세계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일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강좌실에서 시작된 '좋은 음악&좋은 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5일(621회) '천사의 악기' 플루트  
12일(622회) '미션을 수행하다' 오보에 & 바순  
19일(623회)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전설' 클라리넷  
26일(624회) 이달의 책 읽기 '달과 6펜스(서머셋 모지엄, 민음사)'

# Program Guide

##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감상회. 내 삶의 힐링을 위한 클래식음악과 만나는 자리로, 클래식음악을 영상과 함께 알기 쉬운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 1강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B단조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소나타 1번'
- 2강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전막 감상
- 3강 베를린 필하모닉 '발트뷔네 숲속콘서트' 공연실황
- 4강 다시 보는 빅콘서트\_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바덴바덴 리사이틀'
- 5강 클라리넷 명곡\_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베버 '클라리넷협주곡'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9월 아카데미

**일 시** 9월 4일(월), 5일(화), 11일(월), 12일(화), 18일(월), 19일(화), 25일(월), 26일(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4일(월) 오후 7:30 극작가 김문홍, 영화 속을 걷다(2) 가족사의 부침을 통한 역사적 은유\_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허우 사오시엔 감독)
  - 강사/김문홍(연극평론가 부산공연사연구소장)
- 5일(화)~24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00 클래식에 반하다(1)
  - 강사/류준하(음악해설가 저술가)
- 5일(화) 오후 7:30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시와 예술, 영화 '킬 유어 달링스(Kill Your Darlings)'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수)
- 11일(월) 오후 7:30 촬영감독의 영화읽기(5) 분위기를 만드는 촬영감독 에마누엘 루베즈키\_영화 '송투송(Song to Song)'(테렌스 맬릭 감독)
  - 강사/정성욱(촬영감독, 동덕대학교수)
- 12일(화) 오후 7:30 스페인음악의 모든 것(3) 낭만과 혁명의 시인, 로르카\_영화 '피의 혼례(Bodas de Sangre)'(카를로스 사우라 감독)
  - 강사/정찬식(스페인음악해설가, 기타리스트)

18일(월) 오후 7:30 광근수 클래식투어(13) 바로크시대 합창음악의 향연(헌델, 바하)

-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 19일(화) 오후 7:30 이성훈의 예술과 사유(13) 2017유럽그랜드아트투어를 다녀와서(2) 윈스터조각프로젝트 카셀도큐멘타/베니스비엔날레 아트바젤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 25일(월) 오후 7:30 메멘토모리(memento mori) 웰다잉(Well-Dying)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수)
- 26일(화) 오후 7:30 한국적인 유희를 찾아가는 화가 김종학의 삶과 예술
- 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2강 러시아 5인조

**일 시** 9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의 불모지였던 러시아에 새로운 음악지평을 활짝 열었던 '튼튼한 친구'의 작곡가 보로딘, 세자르 쿠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 발라키레프의 작품을 소개하는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 전시 | Display

##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역사를 만나다 예술의 새 패러다임 경험

**일 시** 9월 14일(목)~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13주 25만원(해설집 제공)  
**문의**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663-5311

- 14일 **켈틱음악2** - 슬픔이 아로새겨진 신비로운 아일랜드 음악
- 21일 **쿠바음악** - 세계 리듬의 보고, 뷔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나라
- 28일 **집시음악과 플라멩고** - 유랑민족의 열정과 절규
  - 기획 및 해설/최정욱

##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6강 스페인의 천재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일 시** 9월 21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제6강 사색의 계절 9월-청색편

**일 시** 9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파스널컬러 전문가 박미송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여섯 번째 강좌 '청색편'. 사색의 계절 9월을 맞아 무지크바움에서는 청색으로 펼쳐지는 고독과 사색을 만날 수 있다.

## 시마당 제175회 詩 낭송회

**일 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오성병원 강당  
**입장료** 무료(사회집 중정)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 반고흐 라이브 展

**일 시** 5월 11(목)~9월 30일(토)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초중고생 1만 2천원  
어린이 8천원  
**문의** ㈜리얼 미디어 741-3007

## 이헌정 'The Journey 2017'展

**일 시** 8월 10일(목)~9월 1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 중간보고서 2017 '정희승, 스탠차 Stanza'

**일 시** 8월 19일(토)~10월 18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BUSAN-부산에 가면'展

**일 시** 9월 20일(수)~10월 22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RECORD

GM뮤직 제공



## 컴필레이션 '여유 6'

▶ 힐링과 휴식, 감동을 담은 우리 시대의 명작(名作)

지난 2003년 3월 처음 세상에 소개된 컴필레이션 음반 '여유'.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음악'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기획 의도에 완벽히 들어맞는 선곡으로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왔다. 재즈, 영화 음악, 뉴에이지, 컨템포러리, 월드뮤직은 물론 크로스오버와 클래식 장르에 이르기까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서정적이면서도 편안한 감성의 곡들로 '치유와 휴식'을 가져다 준 앨범이 바로 '여유'이다. '여유'하면 떠올리게 되는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 안에서 가장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음악 작품'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각광받는 곡들을 대거 수록된 것이 눈에 띄는데, JTBC '팬텀싱어'를 통해 인기를 얻은 펄페라 장르의 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화 '카뎀 사사이어티', '아멜리에'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팬텀싱어'를 즐겨봤던 이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 이고르 레비트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 젊은 대가 이고르 레비트의 9월 내한 기념 앨범 전격 발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한 1987년생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루빈슈타인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자 이고르 레비트(Igor Levit), 그의 섬세한 터치와 완벽한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 라이선스가 발매됐다. 러시아 태생의 독일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비트는 지난 2005년, 당시 10대의 나이에 세계적 권위를 지닌 이스라엘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에서 2위와 함께 청중상, 실내악 연주상, 현대음악 연주상까지 수상하며 전 세계 클래식 관계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레비트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등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지며 명실상부한 스타 피아니스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번 음반에 수록된 레비트의 연주는 자칫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과 주법 등을 최대한 경계하면서도 피아노라는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연주할 때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듯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피아노 특유의 깔끔하고 명료한 음색이 강조되었으며, 80여 분에 이르는 긴 음악적 호흡 역시 적절히 분배되어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 아말리아 로드리게스 '파두(Fado)'

▶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일생이 담긴 음반!

'운명, 숙명'의 뜻을 지닌 파두는 포르투갈 민중의 삶을 노래한 민요로서 언제 들어도 구슬프고 서정적이다. 파두라는 이름은 귀에 설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한 때 '파두의 여왕'으로 불렸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검은 돛배' 등을 통해 친숙하다. 파두 하면 떠오르는 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1920년 리스본의 비천한 가정에서 출생, 길거리에서 꽃을 팔며 혹은 선창의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힘든 소녀시절을 보내다가, 1939년 Retiro Severa에서 실질적인 데뷔를 하고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 음악적인 성공과 함께 영화 '검은 외투(Capas Negras)'에 출연하면서 은막의 스타로도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녀는 특히 1954년 영화 '타구스 강변의 여인들'에 출연, 극중에서 그녀의 최고의 대표곡 '검은 돛배(Barco Negro)'를 불러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포르투갈의 국민적 영웅이자 절정의 파디스타(파두 가수)로 살아온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지난 1999년 10월 6일 79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이번 음반에는 불후의 명곡인 '검은 돛배'를 비롯해 '고백', '이유없는 사랑', '무어인' 등 그녀의 주옥같은 레퍼토리 40곡이 수록되어 있다. (2CD 40곡)



박헌주 · 북칼럼니스트

# BOOK



## 나는 빈센트를 잊고 있었다

프레데릭 파작 지음, 김병욱 옮김 / 미래인  
264p / 1만8천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뭔가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넘어서는 고흐의 전기가 나왔다. 메디치 상 수상작가인 프레데릭 파작이 방랑과 실패의 여정을 살았던 고흐를 새롭게 읽어 낸 전기이다. 고흐는 살아서는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세상을 떠돌았던 불우한 예술가였다. 실아생전에 그가 판 그림은 고작 <붉은 포도밭> 한 점뿐이었고, 그의 그림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동생 테오뿐이었다. 고흐의 삶은 처절한 방랑과 실패의 기록 같은 것이었다. 소설가이자 화가인 저자는 바로 그런 방랑과 실패의 여정에서 고흐를 새롭게 읽어내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네덜란드 흐르트 쾨더르트에서 시작하여 런던, 보리나주, 파리, 이를, 생레미를 거쳐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이르기까지 고흐의 고독한 방랑의 자취를 쫓았다. 그래서 이전 기에서는 기존의 책들에서 방대한 디테일 또는 화려한 그림 색채에 파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고흐의 실존적 방황을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반 고흐가 머물렀던 곳을 답사해온 저자는 고흐를 낳고 그를 보듬어준 풍경들, 고흐를 우울하고 절망하게 했던 풍경들,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 주목한다.



## 꿀벌과 천둥

온다 리쿠 지음, 김선영 옮김 / 현대문학  
700p / 1만7천8백원

음악이 가진 원초적 아름다움을 담아낸 소설. 25년간 60여 편의 작품을 가집없이 발표한 온다 리쿠는 못 말리는 음악 애호가이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피아노를 다룬 작품을 써보고 싶어했다. 작가는 2003년 열린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 18세의 나이로 공동 우승한 리파우 블레하츠의 이야기를 접한 뒤, 이 대회를 모델로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 번의 대회를 참관하며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 무대와 객석 풍경은 물론, 참가자들의 연주까지 소설 <꿀벌과 천둥> 속에 완벽히 재현해냈다. 작가가 두 번째 참관한 2009년 대회의 우승자가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화제가 되었던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구상 12년, 취재 11년, 집필 기간 7년에 걸쳐 탄생했으며, 일본 문학사에 유례없는 대기록을 남긴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힌다. “음악을 글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온다 리쿠는 모든 수단과 표현을 동원해 그 아름다움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한다”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평대로 이 작품은 갖기에 음악이 흐르는 듯 생생하고 입체적인 문장들로 가득하다. 음악을 글로 읽어내는 새로운 기쁨을 줄 것이다.



## 한국 재즈음반의 재발견

박성건 지음 / 스코어(score) / 336p / 2만2천원

<한국 재즈 100년사>를 시작으로 재즈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가 두 번째 재즈 책을 펴냈다. 저자는 경기도 산속에서 하루 종일 음악을 파고들며, 한국대중음악사의 빠진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해외 재즈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서적들에 비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한국 재즈음반의 창조성에 집중하고,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기록들을 한데 모아 보여준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디크미네의 <다이나>를 비롯하여 재즈 1세대인 엄토미, 정성조, 유복성, 신관용, 최선배 등 사료적 가치가 되는 150여 장의 음반을 선정하여 집필하였다. 한국 재즈를 잘 모르더라도 책에 수록된 사진과 저자가 들려주는 정보를 읽다 보면 한국 재즈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재즈 관련 서적이 미국과 유럽재즈에 쏠려 있는데 이 책은 한국의 재즈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즈 애호가뿐 아니라 클럽음악과 아이돌 가수에게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와 대중가요를 벗어나 재즈의 한국화는 음악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일임을 말해주는 책이다.



부산시립예술단

##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클래식 특특' 신설

- 8월 28일~9월 8일 신청접수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의 예술적 감성 교육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해설음악회 '클래식 특특'을 2017년 2학기부터 새롭게 신설한다.

'클래식 특특'은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시립예술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레퍼토리를 학생들에게 해설과 함께 들려주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곡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문화 예술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금관5중주, 현악4중주 레퍼토리, 합창단에서는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으로 교과서 수록 가곡, 오페라 아리아들로 구성된 교과서 음악회와 영화보다 재미있는 오페라 등 다양한 테마로 공연을 진행한다.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과 초, 중,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도 '클래식 특특'에 직접 참여, 즐거운 교실음악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클래식 특특' 참가비는 무료이다.

대상 :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시행시기 : 2017년 9월~(2학기)

소요시간 : 40~50분 내(수업시간 내)

참가비용 : 전액 무료

연주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신청기간 : 8월 28일~9월 8일(1차 접수 후는 수시 접수) 접수 시 일정, 단체, 프로그램 조정 후 공연 확정  
(단, 기본 프로그램은 제공, 최종 프로그램은 협의)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4), 부산시립합창단(607-311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 9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9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9월에는 1일 아세안 문화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아세안 문화원 개원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립해양박물관, 수영구청, 부산세관, 송상현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 찾아가는 예술단 9월 일정

1일(금) 오전 10:20 아세안 문화원 야외무대 \_ 국악관현악단 '아세안 문화원 개원식 축하공연'

2일(토) 오후 5:30 국립해양박물관 야외무대 \_ 국악관현악단 '국립해양박물관 초청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영도의 가을'

7일(목) 오후 3:30 수영구청 대강당 \_ 교향악단

14일(목) 오후 12:00 부산세관 로비 \_ 교향악단

15일(금) 오후 7:30 송상현광장 창업카페1호점 \_ 교향악단

20일(수) 오후 2:00 부산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_ 교향악단

20일(수) 오후 7:00 광안1동 썬지공원 \_ 교향악단





##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2017년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내 초·중·고교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공연일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7년 9월 18일(월)~10월 13일(금) 18:00까지

접 수 처 : bko2934@bscc.or.kr(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소장양식), 합창단 프로필(5줄 기준)로 작성, 합창단 사진, 지휘자 사진, 반주자 사진, 연주 곡명 및 악보 제출(공연 10분 이내)

### 3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심의일자 : 2017년 10월 16일(월)

선정기준 : 활동 기간, 단원 구성, 연주 횟수, 곡목 수준, 준비 정도 등을 근거로 선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

참가단체 통보 : 2017년 10월 18일(수) (선정 단체 개별통지)

### 4 유의사항

반주는 피아노만 사용 가능합니다.(단, 타악기는 사용 가능) / MR, AR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단체 연주곡목 외 연합합창곡을 연주합니다.

### 5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607-3170)



## 부산시립무용단

### 대만 가오슝 '부산관광설명회' 참석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홍보를 통한 대만 관광객 유치에 위해 대만 가오슝시에서 여는 '부산관광설명회' 축하무대를 위해 9월 3일 출국한다.

부산광역시와 가오슝시는 지난 196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문화 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올해 세계

적으로 유명한 숙박 예약사이트인 '부킹닷컴'에서 대만 국민들이 사랑하는 10대 미식도시에 부산이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9월 4일 가오슝 타이워(MLD, 台鋤) 1층에서 열리는 '부산관광설명회' 축하공연에서 드라마 '대장금' 주제곡을 배경으로 전통춤인 한량무와 산조춤을 한 폭의 풍속화로 이미지화한 즉흥무와 리드미컬한 장단의 흥겨운 민요 '창부타령', 우리소리의 대명사 '아리랑'을 담은 춤 등 다양한 춤사위를 담은 '코리안 댄스토피아(Korean Dancelopia)'를 통해 우리춤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9월부터 유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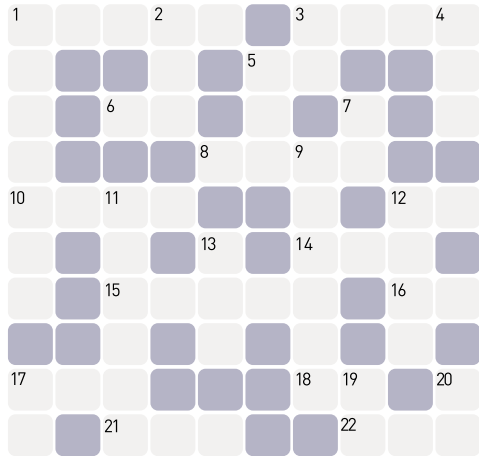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에 동참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기존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차량),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 다자녀가정 가족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중 시, 구, 군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에 한해서는 50% 감면.
-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해 VP회원은 주차권 10매, 스페셜회원은 주차권 6매, 예술단회원은 주차권 4매 무료 지급.

### · 주차료(선불식 운영)

대상	금액	비고
일반 및 공연관람객	2,000원	일 정액
	40,000원	월 정액
아카데미 수강생	1,000원	일 정액
	10,000원	월 정액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 가로열쇠

- ①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 구조대의 활약을 그린 교육용 애니메이션. 9월 개관하는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 ③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명을 받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미켈란젤로의 생애 최고의 작품.
- ⑤ 24절기의 하나로,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
- ⑥ 3/4박자의 경쾌한 춤곡. 유명한 작곡자로는 쇼팽, 차이콥스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가 있는데 특히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유명하다.
- ⑧ 에스파냐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소설. 그 당시 에스파냐에 크게 유행했던 기사도 이야기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후대 평론가들로부터 진정으로 '인간'을 그린 최초, 최고의 소설이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 ⑩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알 밖에서 서로 꼬아야 한다는 뜻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제시간을 비유하거나, 서로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⑫ 유럽에서 발생하여 발달해온 무용형식. 음악, 팬터마임, 의상, 장치 등을 갖추어서 이야기나 주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이다.
- ⑭ 평의 암컷.
- ⑮ 나치 치하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살던 유대인 소녀가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일기.
- ⑯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제주 근해의 부속도서로서 면적이 가장 크다.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올해 8월부터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이곳에 등락지와 차고지를 두지 않은 관광객들의 차량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 ⑰ 나무를 파서 만든 신으로 주로 비을 때 신는 신발.
- ⑱ 남자가 형의 배우자를 일컫는 친족 호칭.
- ㉑ 세마치장단과 함께 민속 음악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장단의 하나. 느리지만 어깨가 들썹거리고 고개가 절로 움직이는 흥겨운 가락으로, 몸의 들썹임과 잘 맞아서 주로 탈춤이나 무용의 반주로 쓰인다.
- ㉒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 각 컴퓨터는 네 자리 숫자의 고유번호(IP Address)를 할당받게 되는데, 일반 이용자는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부여한 명칭이다.

## 세로열쇠

- ① 셰익스피어가 쓴 최초의 낭만적 비극으로, 숙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청춘 남녀의 운명적 연애 비극을 다루고 있어 오늘날까지 음악,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 ② 영국의 성악가이자 가수. 2007년 영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탈렌트'를 통해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 '브리튼스 갓 탈렌트' 우승 후 2007년에 발매된 1집 앨범 'One Chance'는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밀리언셀러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4년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됐다.
- ③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칼데라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
- ④ 2015년 10월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후 독주회는 물론 출연 콘서트에서 잇따라 순식간에 매진시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 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가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뒤 또 다시 '○○ 열풍'을 불러일으킨 일본의 소설가. 이번 소설에서 중국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 우파 성향을 드러낸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⑦ 세계 문학사의 거인으로 널리 인정받는 독일 문호로 르네상스 거장다운 다재다능함으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이 있다.
- ⑨ 연말 공연장의 단골 레퍼토리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
- ⑩ 부산지역으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해변마을 일대에서 행해지는 별산국으로 흔히 풍어제라고 부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⑫ 봄베이(Bombay, 1995년부터 뭍바이로 명칭 변경)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인도 영화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 ⑬ 서울시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지점에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한 한강 사이의 섬. 한강의 토사가 퇴적된 모래땅이었으나 1969년 서울교를 시작으로 마포대교, 여의교, 원효대교가 완공되면서 지금 현재는 국회의사당, 전국경제인연합회, 각종 금융관개사, 한국방송공사 같은 크고 작은 기관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 ⑭ 1920년 독일 노동자당이 개칭한 이름. 독일이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세력으로 전체주의를 표방했으며 1932년 제1당이 되었고,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임명되면서 히틀러 정부가 등장했다.
- ⑮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 ⑯ 장례에서, 상여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

## 지난호 정답

1	아	이	스	발	3	레		4	이	주	흥
	이		핑		5	웅	6	고	집	전	
	다		크			호		7	투	우	8
		9	이	스	라	10	엘		11	지	구
			문			렉		방			찬
12	속	세		13	페	트	라		14	골	15
	리		16	상		라		17	꼭		럭
18	산	티	아	19	고		20	파	두		21
				22	산	조		가			어
23	어	린	왕	자		24	택	시	운	전	사

## 9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김진영(남구 유엔평화로), 조재현(금정구 김강로)
큰집 식사권	김경희(부산진구 동천로), 이기화(부산진구 동성로), 이정미(중구 중구로), 이지훈(해운대구 대천로), 허윤희(부산진구 초읍천로)
조은극장	박현희(금정구 동천로), 석종민(연제구 안연로), 신승민(북구 화명신도시로), 이애희(서구 보수대로), 최수영(북구 화명신도시로)
공간소극장	김진주(해운대구 우동2로), 김태원(동래구 복천로), 박아영(동래구 금샘로), 오현진(수영구 수영로), 이지연(남구 수영로)



##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이상미

blog.naver.com/lsm5462



정지은

www.instagram.com/la\_valse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공연장 속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동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 국립 아이스발레단 공연을 만나다

대극장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차이콥스키의 음악. 공연을 보기 전 이미 나는 백조의 호수에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로비 중앙의 연주자들을 향해 박수쳤다. 공연 십분 전 울리는 시작 임

박 소리에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발레는 어떨까 생각하며 기다렸다. 커튼이 열리자마자 펼쳐지는 하얀 얼음 위가 너무 아름다웠다. 얼음 위를 달리는 특유의 얼음이 깎이는 소리도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된 1장. 왕자의 21번째 생일에 생일을 축하하는 모든 백성과 귀족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화려한 의상과 더불어 스케이팅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무는 완벽했다. 2장에서는 신비스러운 숲속을 연출하는 무대가 실제와 혼동될 정도로 사실적이었다. 백조가 왕자의 눈앞에서 여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는 안무는 스케이팅의 스피드와 어우러져서 더욱 강렬한 장면으로 다가왔다. 3장 궁정무도회에서 선보여지는 군무는 러시아 정통 문화가 녹여져서 더욱 이국적이고 특색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전의 내가 보던 발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장면의 오해와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안무를 보며, 나도 함께 슬픔에 빠져들었다. 안무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감동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다. 스토리 전개는 단순하지만 화려한 의상과 음악, 스케이팅의 모든 조화로움이 나에게 판타지 같은 동화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공연이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타파시켜줄 아름다운 동화속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막을 내렸다.

8월 9일 무더위로 힘든 저녁, 부산문화회관에서 아이스발레 공연이 열렸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발레공연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착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고, 북적이는 사람들로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었다. 러시아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와 역동적인 피겨 스케이팅의 완벽한 조화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 콘스탄틴 보얀스키에 의해 설립되었고 크리스탈 궁전을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아이스발레의 장르를 개척했다. 공연 주제는 발레음악으로 유명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였다. '백조의 호수'는 초연 때는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후에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프티파, 이바노프의 개작으로 진가를 인정받고 고전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한다. 평소 보던 음악회와는 조금 다르게 막이 올라가며 공연을 시작했다. 무대 위에는 아이스링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음악과 함께 스케이트화를 신은 발레단이 무대를 장악했다. 아이스링크 위에서의 발레를 보고 있자니 김연아 선수의 피겨 동작들이 떠올랐다. 어쩐지 익숙한 동작 덕분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공연이 더욱 친밀하게 다가왔다. 음악으로 들던 백조의 호수를 아이스링크가 설치된 무대 위에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의 공연을 눈으로 보니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받았고,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발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 (재)부산문화회관

## 정기회원 가이드

·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 회원가입

**가 입 신 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 통 장 입 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 문 신 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 VIP

**연회비** 10만 원  
**초대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 SPECIAL

**연회비** 5만 원  
**초대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 MEMBER

**연회비** 3만 원  
**초대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7년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 연주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권 좌석은 S석 기준에 한함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6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협주곡 마장조 BWV1042  
요한 슈트라우스 2세/페르페툼 모빌레 등
- 지휘/데안 다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연주/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8월 8일(화) 오후 3:00, 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토슈즈 대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전혀 다른 정통 발레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소리로 듣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10월 1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출 및 사회/정희정
- 성악가/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바리톤 박대용
- 성우/배한성, 이선, 유호한
- 지휘/김현수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월 14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힌데미트/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 Op.47  
슈트라우스/영웅의 생애, Op.40
- 지휘/요엘 레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미도리
  - 연주/KBS교향악단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즈'

🕒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Op. 34  
피아졸라/천사의 밀롱가, 천사의 죽음 외
- 바이올린/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 비올라/페터 사기이썬
  - 첼로/마이클 윌리엄스
  - 클라리넷/헬무트 회들
  - 바순/비앙카 슈스터



##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TWV51:G9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BWV971  
비발디/'사계' 중 '가을', '겨울'
- 지휘/타케하루 노부하라
  - 연주/텔레만 실내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을 위한

# 특별한 혜택!

DISCOUNT COUPON

BNK부산은행조은극장
공연관람료 <b>10~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T. 1588-2757

공간소극장
공연관람료 <b>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T. 611-8518

필하모니
식사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8-2592

물회품은보쌈
식사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석포로 116
T. 612-5820

드레스ARIA
대여 및 판매 <b>3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9
T. 515-5796

안경나라(동래점)
전 상품 <b>20%</b> 할인 일부품목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동래구 총렬대로 110
T. 505-8987

노벨안경콘택트
전 상품 <b>2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T. 626-8263

화미주헤어(경성대점)
펌염색클리닉 <b>3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남구 용소로 17 2층
T. 611-8600

여우 헤어스토리
현금 20%, 카드 <b>10%</b> 할인 커트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중구 흑교로 16-1
T. 243-0609

대보당한의원
진료비 <b>15%</b> 할인 ※ 비보험진료(당약, 봉침 등) 진료비, 청정한악 다이어트(홍보단 제외), 공진당, 경육고 등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골든테마길 14
T. 412-7513

희망클리닉
진료비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누리빌딩 9층
T. 804-0999

알파신경외과
진료비 <b>10%</b>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 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T. 807-0114





첼로 양육진



소프라노 김미주



비리톤 박정섭



수석지휘자 김봉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 Symphony No.5-II

G. Rossini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로시니 / 오페라 '세빌리아의理发사'

C. Saint-Saëns  
Cello Concerto in a minor op.33  
생상스 / 첼로 협주곡 1번 가단조, op. 33

F. Mendelssohn  
Symphony No.5 in D major, "Reformation" Op.107  
멘델스존 / 교향곡 No. 5 라단조 op. 107 "종교개혁"

2017. 9. 27. (수)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균일 2,000원 <문의> 051-607-3117

☎ 서비스센터(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영교차로 방향 100M "7번가리지"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 - 금 18:30 / 19:00 (19:30분 공연기준, 공연있는 날에 한함)

# 솔리스트첼로 앙상블 『경상』

*Solist Cello Ensemble*

2017. 9. 17<sup>SUN</sup> 5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주최 | 부산문화회관 후원 | 예원드림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및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http://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 [www.ticketpark.com](http://www.ticketpark.com) 1544-1555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 ~ 금 공연 1시간전 / 30분전(2회 운행)





조윤범과 함께하는

# 마티네 웰빙 콘서트

Season 2



Conduct 정병휘



violin 김유섬



violin 김상운



violin 강예정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9. 20 수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협찬 SHINSEGAE HAN 화미주어 컴퍼니

문의 051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할인정보 30%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가족회원) • 단체 10인 이상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유증서) • 모범납세자 • 문화예술인페스티벌 소지자 본인 • 임신부(임신 1년 전)에 한함

50% 장애우(1~3급, 동반 1인 / 4~6급, 본인) • 국가/특정 유공자 본인 • 의사지 유족 및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학생 단체 20명 이상 1인 5,000원 • 3회 동시구매 30% 할인 • 2회 동시구매 20% 할인



노자와 베토벤

# 喜 怒 哀 樂

기획공연

클래식, 철학을 듣다

예술감독 오충근

특별출연 최진석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17. 9. 30(토) PM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희로애락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2017.10.13(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기획 및 연출 정희정 출연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바리톤 박대용, 성우 배한성, 이선, 유오한  
지휘 김현수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THREE  
PORTS  
TIME

삼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쟁대하소설,

# 삼포시대

일본의 국가체제를 정립한 쇼토쿠 태자는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씨 뿌린 사생아,  
일찍이 한국의 우수한 문명은  
포구를 통해 일본에 문화의 꽃을 피웠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한일관계의 비밀을  
역사의 문풍지 틈새로 살짝 엿본다



총 8권 · 지은이 문성근

현재 1~5권 발행  
6~8권 - 9월 말 발행 예정  
구입문의 | 효민디앤피(051-807-5100) · 전국유명서점





# TRISHA

WEDDING JEWELRY



2017-18 BUSAN FESTIVAL ORCHESTRA

#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I**

베토벤 교향곡 제1번 Beethoven Symphony No.1 in C Major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지휘 금난새 Gum Nanse 협연 심준호 Shim Joon-Ho  
연주 Busan Festival Orchestra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 **10. 19.** Thu. 19:00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구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



알티렌즈 아시아태평양 레퍼런스 닥터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Surgeon

**스마일라식**

**누네빛안과**의원



로보카  
폴리

에듀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로보카폴리  
세가지 안전약속

2017.9.13. ~ 12.31. 오전 11시,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어린이전용극장

입장권 전석 2만 원

단체문의 051)607-6055